

---

제17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

일시 1957년11월27일(단기4290년)(월) 오전10시30분

---

의사일정

1. 제17회임시회제2차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시정감사결과보고의견
- 

부의된안건

1. 제17회임시회제2차회의록통과 ... 1面
  2. 보고사항 ... 2面
  3. 시정감사결과보고의견 ... 4面
- 

(10시 30분 개회)

○의장 박명준; 지금부터 출석의원 25명으로서 제3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

1. 제17회임시회제2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없으면 회의록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은 이원찬의원 방동석의원 지명합니다.

다음은 간사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 2. 보고사항

○간사장 신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청가에 관한 건입니다.

이응린의원으로부터 신병관계로 오늘 하루 청가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종원의원으로부터 신병치료 제25일부터 4일간 구두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그다음 김재광의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김재광; 여러분께 유인물을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제 16회임사회제2차회의에서 일반 택시 합승겸용에 대한 건의를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위촉을 받은 것입니다.

금일 양위원회에서 합의로서 이와같은 건의문을 집행부에 이송하였기 보고해 올리는 것입니다.

이 유인물에 건설위원회의 명의를만 나와있고 내무위원회의 명의를 만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쇄의 착오가 있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택시합승겸용에 대한 이유

본시택시합승제를 허가할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위 행정조치로서 차량도 보유의 많은 신규합승업자를 허가하여 기존업자소유의 차량을 취득함으로서 비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기 후 시민이 점차 합승택시의 이용률이 점고함에 따라 일반택시로 하여금 합승으로 겸용하라는 상망도

있고 또 충남 경남지방은 일반택시로서 겸업한도를 제정되어 있어 시민의 절대적인 요망에 따라 전면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 차량을 합승으로 겸용할수 있도록 좌기와 여한 이유를 열거하오니 특별조치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기

#### 1. 휘발유 절약

만일 150명을 수송하는데 50대의 차량이 필요한 것을 겸업하게 되면 10대로서 충족되어 이만큼 휘발유가 절약됨.

#### 2. 시민의 교통비절약

1인이 편승하여 지불하는 것보다 오인이 편승하여 그만큼 운임을 분담하게 되니 교통비가 절약됨.

#### 3. 합승제도에 이권화방지

일반택시의 문호를 개방하여 합승을 겸용하면 합승제 허가를 독점하여 이권을 장악하고자하는 신규업자의 책동을 미연 방지하게 됨.

#### 4. 교통완화

택시 50대로서 운행한 것을 10대로서 운행케되면 현재 폭주하는 교통망을 시정할 수 있음.

#### 5. 기존택시업자의 보호육성

신규업자에게 합승을 허가해주면 보유차량이 없기 때문에 기존업자의 소유차량을 취득코저하여 상당한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일반택시를 겸용하게 되면 자연기존업자를 보호육성하게됨.

#### 6. 시민의 절대적인 요망

상술한 이유로서 휘발유절약 교통비절약 교통완화 등등 절대적으로 시민은 일반택시의 합승겸용을 요망하고 있음.

이하 기준노선과 기점과 경유지 종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양위원회가 위임받은 일반택시 합승겸용에 대한 경위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그다음은 문학우의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학우 의원;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사는 김제타외 46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심의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는 내무위원회와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신종수 사회보건위원회 최인호의원 본인 세사람이 심의한 결과 난민 주택을 알선해 준다는 憑籍下에서 답십리동장 박영하가 동민으로부터 교제비 9만8천환을 받아 교제비로 사용했다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동민들로부터 동장에 대한 불신임이 제기되어서 급기야는 검찰청에 사기횡령의 고소까지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본위원회 합의하에서 불신임을 받고 있는 동장이니만큼 아무리 선거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가하다고해서 자진사퇴를 권고키로 해서 집행부로 이송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준; 오늘 보고사항은 이로서 끝나겠습니다. 다른 보고없지요.

다음은 제3항으로서 시정감사 결과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분과위원회 관계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국장 나와주십시오.

---

### 3. 시정감사결과보고의견

○산업위원 한상기; 산업위원회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보고가 있음으로 여러분께서 피로와 권태를 느끼시는 모양인데 산업위원회 보고는 간단합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심하시기를 바라며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보고는 오늘로 마칠테니까 이십분에 제한해서 감사보고를 마쳐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간단할지라도 과연 20분에 마칠는지…….

초과하드래도 수분에 불과할테니까 안심하고……. 감사 개론은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보고해 드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산업위원회 감사대상과는 본청에 있어서 상공 농업 농지 소○의 4과로 되었습니다.

각과의 소관사무에 대해서 본의원은 정책에 관한 것을 주로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는 본위원회 간사인 강을순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공과소관으로서는 시장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장도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싶이 수산시장도 있고 청과시장도 있고 공설시장도 있으며 공인시장도 있습니다.

지금 주로 보고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공설시장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하고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공설시장은 시영조물입니다. 이 공설시장 시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공인 사설시장이 공인된 것이 28개소와 아직 공인되지 못한 개소가 몇 개소인지 알 수 없는 것만큼 사변이후 시장이 급진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 시영조물인 9개소 공설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를 느껴서 이번 사무감사때에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첫째 이와같이 서울시가 급진적으로 시장에 배치하여 가는 때 9개소 공설시장으로서는 시장목적은 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9개소라 하는 것은 왜정시대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즉 말할 것 같으면 왜정시대의 유산물과 같은 이공설시장인데 이 시장현실이 시민의 생활에 복지에 추호도 기여할바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 점을 말씀하고자하는 것인데 어째서 그러냐……? 과거에 이공설시장이 시민에게 복지를 기여한바를 몇가지 들자면 그 당시는 경제적 체제가 통제의 경제가 되어서 공설시장은 제약을 받으므로 일반시민에게 비교적 저렴한 상품을 수급할수있는 것이 한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상품은 비교적 염가이거나 그 외에 개인이 기만을 해서 판매하는 일이 없고 공설시장에는 일정한 정찰이 붙어서 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일용품을 매수할수 있는 것이 공설시장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을 규모있게 잘해서 생활일용품을 이상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것이 공설시장에 대한 이점이었습니다. 또한가지는 요소 요소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을만한 시설이 되어서 그 교지적 조건으로서 시민에게 가까운 거리에 좋은 상품을 염가로 살수있는 그런 ○지적 조건이 유리한 점이었습니다.

대개 그 외에도 있을는지 모르거니와 과거에 공설시장이 우리 시민에게 복리를 준다는 것은 이 몇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 몇가지가 오늘날 현실에서는 그 이점을 다 상실해 버렸다 그말이에요. 어째 그러냐 할것 같으면 첫째 염가의 상품을 제공한다는 것과 정찰제도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수있는 조건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반드시 공설시장 물건이 저렴하다고 보장할만한 아무것도 없고……그런 현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가지 위생적 시설로 보아서 다른……시장물품보다 일용생활품이 잘 보장이 되지 않고 매매되어서 위생적으로 유익한 복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서대문구 공설시장만은 대금의 시비를 수복이후 지출해서 재건을 한 까닭에 그만합니다마는 일제의 유물이라 오래동안 수리도 아니하고 많이 퇴락하여 형편없습니다.

위생시설은 고사하고 오히려 다른 공인사설시장보다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외 현상이나 그러한 점으로 보아서 형편없습니다.

이제 말씀한 그 두가지 조건…… 위생적으로도 복리주는 점이 없고 또 한가지 입지적조건…….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이 먼곳에 여기 저기 사라져가지 않게한 상품을 집단적으로 판매하여 시민에게 복지를 주는 이런점도 없고 이제 무허가 시장 공인사설시장이 각처에 급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을때 있어서 하필 공설시장에 가서 사지 아니할 것 같으면 곤란한 그런 점을 거진 해소된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점 등으로 보아서 공설시장이 오늘날시민에게 복리를 과연 얼마만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 검토해본 결과에 조금도 우리 시민생활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영조물로서 시정의 빈곤상을 외부에 나타내고 있으며 그 공설시장의 건물은 상당히 오래되어 허물어져가고 있으며 협소하여 비위생적이요 또 영업도 잘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자면 징세는姑拾하고 9개소를 개선하자면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전부 서대문시장과 같이 근본

적으로 재건하지 않을것 같으면 아니될 이런 시급한 현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현실에서 의당 이것은 9개소나마 일부 분이나마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위생적으로 재건해서 시민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시재정상으로 보아서 이것은 이상주의는 될지언정 현실은 용이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9개시장의 건물과 대지의 가격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것을 추산해본 결과에 약3억환에 가까운 지금 탁상으로 추산한 결과 2억7천만환이라는 산출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공설시장이 시민의 복지에 毫末이라도 기여함이 없이 3억 환에 가까운 거대한 시재산이 부질없이 3억환에 가까운 거대한 시재산이 부질없이 사장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이대로 두는가 이제 일부분이나마 이것을 위생적으로 시설을 개선해서 시민에게 다소라도 기여할까 하지만 재정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束手傍視하는 상태에 있으니 결국이것은 시산업정책의 빈곤상을 여실히 나타낼뿐이요 거대한 시재산이 부질없이 사장을 하고 있는 이런 결과에 불과하니 이럴바에야 형식적으로 놓을것 없이 차라리 이것을 시영조물로서 민간인에게 불하할 것 같으면 이것을 민간인은 敏速하게 자기타산상 투자를 해서 갱신해서 이용을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낫지않을까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여기에 산업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시설을 증진하는 것은 고사해두고 소극적으로다가 있는 시장까지 폐지를 시키는 것은 산업위원으로 하여금 모순이요 고통입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점을 사무감사라고 하는것보다도 시장정책 모든것을 차제에 충분히 조사해서 검토한 결과 결론이 내려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상으로 시장에 시영조물의 사용이 시세입의 일부○ 되는데 막대한 금액이 비교적 거액이 지금 체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말까지 사용료조정이 천백8십4만6천9백 환인데 징수가 3백2십7만2천백십환으로서 미징수가 8백5십7만4천6백9십환으로서 조정액의 12「퍼센트」밖에 징수가 되지 아니 했습니다.

이점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당국자가 이 시장사용료에 좀 더 노력해야 될 필요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농림과소관으로 한가지 여기에 지적해서 말씀할 것은 성북구 미아동 산75번지와 정릉동 산16번지는 동명은 다르지만 인접한 산인데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사유 임야인데 이 임야에 채석장이 있습니다. 채석할수 있는 채석장이 대성 채석장이라 합니다.

이것은 4287년3월2일부로 1개년간 김성집에게 대여를 승인하도록 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년간 채석장의 채취 대부료로 4만9천환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인이 있는 연후 1년 4288년3월달에 와서 다시 3개년을 연기를 한다고 결재된 서류가 있을 뿐이고 이채취량에 대한 요금은 징수한 흔적이 조금도 없습니다. 서류를 아무리 찾아 볼지라도……그러면 이것은 적은 일같지만 시당국자나 집행당국에서 사유채산을 취급하는데 너무나 무성실하고 무책임하고 나가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태연자약하게 했다고 하는 하나의 표면적 사건이라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해드릴 필요를 느꼈습니다. 채석장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채석장을 다년하고 있는 까닭에 이채석장허가권에 대한 그 절차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년 하고 있는 까닭에……. 채석장허가를 그 토지소유권이 何者에게 있는지 개인소유에든지 歸屬財産이든지 혹은 시유지든간에 그 토지사용 토지점용권을 획득함으로써 채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점용권을 획득한 후 채석허가를 얻어야 되고 또 채석허가를 얻은후에 또 행위허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풍치지구일 것 같으면 풍치지구행위허가를 얻어야 되고 풍치지구가 아니면 도시계획령 제10조에 의한 행위허가를 얻어서 채석허가와 채석허가를 첨부해서 비로서 경찰당국의 火葉許可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석을 하게 되는데 본건은 다만 출원서가 시유지임야내의 채석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출원에 대해서 그냥 채석해도 좋다는 이런 승인을 한 것 뿐이고 여기에 채석료에 대한 대금을 납부했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채석허가를 하거나 행위허가를 한일은 전연히 없으면서도 오늘날 4년동안 이 사람이 채석을 했고 상당한 이익을 보고있는데 여기에 하등의 시당국자로서 시유재산에 대한 수입을 도모한다거나 이런 집행의 절차를 밟아 준법정신으로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냥 방임하여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볼때에 매우 놀라지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재정위원회 보고가운데에도 시당국에서 시유재산을 보관하며 이 수익을 도모하여 정리하는데 놀랄만하게 무책임하고 태만한 그사실이 나타났는데 본위원회에서 이채석장사건에 대한 사무감사결과도 이와같이 4만9천환이라는 초년도의 이 세입도 조정을 해서 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무조건

하고 연기를 3년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이사무 취급의 책임이 어디에있느냐 재무국에 있느냐 산업국에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사무통일상에도 부득불 말씀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시유지를 대여해 주십시오 하는 출원은 재무국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이 대여결재를 하는데 산업국을 거쳐서 합의를 보아서 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시유채산을 일부분 사용 할 대여승인을 얻었으면 이 결재에 의지해서 무슨 수속이 필요하냐 할 것 같으면 채석장허가에 대해서 채석을 대목과 같이……. 임산물과 같이 지상물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원자와 시장과 매매계약을 계속해서 그 대금을 조절해서 그 대금의 완전납부후에 비로서 물권인도를 해서 그 사람이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전연히 밟지 않고 다만……. 서류를 확실히 보았읍니다마는 대여를 승인한다는 이런 정도에 그쳐서 그대로 대금도 징수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입니다. 그러면 가령 재무당국에서 이와같이 대여승인만하고 대금을 징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므로써 채석행위를 했다고 하면 산업국농림과에서는 반드시 채석허가가 없는 채석행위를 함으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그 채석행위를 취체를 하고 허가를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는 도시계획과에서는 풍치지구이면 풍치지구행위허가를 하도록 취체를 해야 할 것이고 또 풍치지구가 아니면 도시계획령 10조에 의한 행위허가를 얻어서 채석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될터인데 이것 다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 본인만은 일전한 분도 안내고 채석을 해서 적지않은 수익을 보고있으니 그사람은 다행일는지 모르거니와 시집행당

국으로서 이 사유재산을 취급하는데 이와같이 무성의 무책임 또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지적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을것 같으면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보고하는 나머지 이것은 감사보고와 별도입니다마는 관련이있다고 볼수있어서 이번 이 사건을 조사하는 가운데에 산업국농림과 담당자와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마는 이제 채석장의 이허가수단이 너무나 중복되고 복잡하니 앞으로 사무간소화를 할길이 없읍니다…….

이런 질문도있고 의견도 있어서 여기에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앞으로 사무간소화에 대해서 할일지만 이사건과 그것과 관련해서 비교대조가 되는 까닭에 한말씀 보고하려고 하는 것은 가령 사유지채석장을 앞으로 이와같이 허가할 경우에는 재무국을 통하든지 출원이 있다고하면 관계 재무국이라든지……. 시세입일 것같으면 재무국이요 도시계획령10조의 풍치지구면 건설국이니까 각국의 소관 담당자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단일허가를해서 시민의 편익을 주도록 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외에 혹은 국유림이라든지 혹은 歸囑財産 채석장에다가 이수속이 너무나 복잡하고 중복됨으로 많은 고통과 필요없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유지점 용권을 획득하는 그것과 채석허가를 내는 것하고 행위허가를 내는 것하고 火葉許可를 별문제입니다마는 이와같은 한 시장 산하에서 이소유권을 점용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2개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만 채석행위를 하게된다. 이런 중복 복잡한 사무는 앞으로 간소화하여 통일개선할 필요를 느껴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량과에 대해서 이 연료문제 가정용무연탄…….

구공탄문제는 여러분께서 무관심을 가지고 먼저번 시의회에서 자동적으로 3억환 기채를 해서 작년과 같이 가정연료에 큰 혼탁이 없도록 해달라는 이런 결의가 있어서 산업국 당국은 매우 감사히 여겨서 기채를 한 결과…….

신청한 결과 1억환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환을 가지고 12,000톤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량리 저탄장을 빌려가지고 오늘날까지 입하한 것이 6,000여톤이고 전량 12,000톤은 12월 상순경이면 전부 입하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철조망을 치고 직원을 배치해서 입하된 ○탄은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매우 우량품이고 또 금년에는 다행히도 시중에 탄이 민관탄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기후도 따듯해서 금년만은 작년같이 탄가가 백수십환에 폭등하거나 수요를 공급할 수 없는 이런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점 여러분이 안심하시고 따라서 각 구청관하에 이 무○탄을 가지고 19공탄을 제조하는 이공장을 시에서 지정제로 했는데 각 구청에 10여개처 혹은 제일 적은데는 8, 9처 가령 이렇게 됩니다. 그 금년에 새로 지정한 신설공장이나 기왕에 있는 공장을 다 시찰해보니까 「푸레스」 기 동력등이 시설이 완전해서 한시간에 적더라도 5, 6백개를 ○출할만한 이런 푸레스기가 한대는 최하의 시설이 되어있고 두대된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적으로 이와같은 탄공장이 분포되고 잘 지정되어있어서 생산공급에도 아무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보고해 드립니다. 안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그 외에도 구체적 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는 장을순의원이 지금 나와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고말씀드리기전에 집행부의 시장 내지 부시장이 참석하지 않은점을 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그중에서 이 채석장허가에 있어서 다소 좀 여러분이 잘알수있게 보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다른 점을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채석장을 4년간 김성집 개인에게 대여해주고저 시로서 돈 한푼도 받지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1년간에 있어서 이채석장에서 4만9천환이라는 서류상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입 조치가 전연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동안에 처음 당시 계약허가시에 있어서 사무착오로 안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선의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1년간 채석을 하고 그 다음 갱신허가를 받을 적에 금년것을 할적에는 돈한푼 받지않었다는 것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사실이 올시다. 그래서 그 당시 관재 계장으로로 있던 현 법제계장 차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드니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김성집에게 물어보아야 할텐데 그사람이 서울에 있지 않아서 상세한 것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시공무원이 횡령 착복을 했느냐 또는 본인이 돈한푼도 안냈느냐 이문제의 초점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관재계장 차계장에게 전말서를 제출하라고 그 했습니다. 본인도 시인하고 잘못되었습니다. 돈은 본인과 상의해서 제가 그대신 변상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사람이 심히 유감히도 서울특별시 법제계장으

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사람 자체가 전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은 별도로 감사한 후 추후에 처리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공과에 대해서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산업국이 소관에 있어서는 제반 예산도 얼마배당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산업국 자체가 너무도 서울시각국에 비한다면 빈약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것입니다.

또한 이각구청에 다소보면 총무과에 산업계가 있습니다마는 불과 5, 6명 되는 이 직원이 올시다. 따라서 인원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말이 산업국 산업계 다그러한 명칭이 있습니다마는 형식에 지나지 못하고있는 현실이올시다. 별도로 각 의원께서는 예산심의를 하실적에 이 산업국에 대한 산업행정에 유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산업계에서 제증명은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농지상환토지매매에 대한 것을 증명해 주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증명자체가 중요성을 갖고 있는것입니다. 그증명을 구청장이 발행함으로서 농지상환 매매가 인정되고 허가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증명서 발행함에 있어서는 서울시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합니다마는 각구청을 본다면 대부분수입 증지는 정당한 조례에 규정된 금액이 첨부되지않은 예가 허다하게 발견됩니다. 따라서 문서 정리에 있어서 불비한 점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되어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구청산업계에 가보면 대부분이 계원 자신이 내지는 계장 과장 이사람들이 문서를 정식으로 총무과로가 받아가지고 자기마음대로 처리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유류배급에 있어서 휘발유 부정 배급에 있어서는 대체로 휘발유 정책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통계적인 휘발유량을 분명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모든 휘발유의 정책면은 人軍이 갖고 있고 또 경제조정관과 중앙 정부에서 하고있는 까닭에 휘발유가 일정한 서울시에 배당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정확한 수자적인 통계적인 휘발유 행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휘발유 배급을 하는데 있어서는 일년중에 이대부분이 십월이후에…….

그전에는 휘발유량이 많이남았습니다. 그러나 10월달이후에는 현 통계적으로 본다면 휘발유가 부족되는 단계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휘발유 부정을 갖다가 즉 모순이있는 것은 10월달 이후로 되어있는 처사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알것입니다마는 10월달에는 있어서는 「짚」 차 소요량은 1,237 드람이 배급이 되었지만 이것은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배급되었다는 것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배급수량은 2,421드람 약2,000드람을 특권 계층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여기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신청인 용산구 한강로2가23번지 고합기업사 대표 김용운 용도는 토목 건축용 신청량及 유류별 휘발유 50드람 대상○○은 무엇이나 하면 화물차가 25대 발전기 2대 이렇게 되었는데 실지 본의원과 이종원의원과같이 현장을 한번실지 답사해 보았습니다. 답사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한대도 없고 발전기하나도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휘발유 50드람을 배급했다는 사실이 올시다.

그러나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휘발유를



그사람이 타는지 안타는지 알아보니까 분명히 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우크라」 ○화용자 추천 및 歸財 24반기 운영 자금 추천에 대해서 서울시가 추천한 제6차 용자상황 17개공장 추천액 4천4백만환 제2차 추천액 3천5백만환 歸財 24반기 운영자금 용자추천상황 11개공장 추천액 3천5백만환 계 46개공장 추천액 1억1천4백만환이 올시다.

그중에서 정당한 기업자가 용자를 받아야 될것인데도 情實에 흘러가지고 본 의원이 본바에는 하등에 기업체로서 인정을 할 수 없는 몇 개 공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종로구 계동 93번지를 비롯해서 성북구 돈암동 22의1 최병렬등 6개공장을 실지 조사한바 따라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계동 93번지 이근성씨에게 추천액 2백만환 제품명은 매물粉 骨粉 具粉 사료공장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조사해보니 약 15평되는 떡방아간이 올시다.

떡방아간에 2백만환 용자했든 사실이 올시다.

그다음에 천지제과주식회사의 경우를 본다면 중구 광희동1가 234번지 노하진 추천액 4백만환 조사하러 현장에 가보니까 다만 방한칸되는 것이올시다.

불과 18평되는 방이며 집가격으로 본다면 약 50만환 정도 되는 그러한 공장이 올시다.

다음에 몇 개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보시고 그정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본인들이 용자해서 받아간 그 혜택을 입는 그 사람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자하는 정신에 背馳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당무자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림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과에 있어서는 제

일도장을 직영치 않음으로 세입 6백3십6만6천3백환의 결손을 보게한 사실 6백3십6만6천3백환 문제는 본인이 계산한 수자가 아니고 당무자인 농림과장의 수자에 의해서 나온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90년7월1일부터 현재 대행하고있읍니다만 서울시가 직영하기로 되어있읍니다. 이것을 직영하기로 책정이 되고 제반 모든 것이 7월1일부터 서울시가 직영하게 된것입니다.

직영하지 못한 관계로 시세입에 결함이 6백3십6만6천3백환이라는 결손을 본사실이 올시다.

그직영하지못하는 사유를 물어보았읍니다. 농림과장이 현재 특별반회계원 확보불능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아직 못했다고 합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특별회계의 공무원확보 불능이라는 이유는 알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따라서 금후 하등에 여기에대한 방책을 수립치않고 束手傍觀하고있는 이처사는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함으로 차후 본건에 있어서는 시급히 해결책을 수립하여 기정방침대로 시행해야할것으로 믿는바입니다.

다음 산림조합연합회에 대하여 단기4290년도 사방 공사에 있어서 재정위원회 보고때에도 사방공사에 ○해서도 유인물에 나타났읍니다마는 금년 공사액이 4천6백8십6만천5백환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차공사 도급에 있어서 공사총액중에서 5분 내지 9분에 해당하는 2백8십2만3천9백환정도로 산림조합연합회에 이익을…… 「미스 프린트」 가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취득케한 사실 및 5분 내지 9분이라는 행정적 조치의 기정방침도 전무한데 ○하여 이해키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차는 본청 총무과 감사계에서 잡비라는 명목하에 임의결정

하였다는 사실등은 더욱 이해키 곤란한 문제입니다.

사방공사비 시설관리비 9십7만2천환중에서 4십1만1천5백6십환을 유용한 사실에 대하여 주무자에게 누차에 공하여 전말서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모순된 사실은 무엇이나하면 사방공사에 있어서 서울시가 산림조합 연합회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공사 총액예를 들어 말하자면 백만환에서 5분 내지 9분은 주고 있는것 입니다. 그산림조합연합회에 주고도 거기 공사한 금액이외에 5분어떤 공사에 있어서는 9분을 주고있는 사실이 올시다.

그러나 5분 내지 9분을 준다면 법적 근거는본인은 발견못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 조치상 산림조합 연합회에 특수 사방공사라고해서 준다고 하면은 서울시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어떤 공사부분에는 몇분을 준다든가 조례로서 몇분과 지정해 노아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점을 당무자 되시는분은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방공사에 있어서는 그유인물에도 나타냈읍니다마는 그철조망공사를 어저께 재무위원회의 보고에도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산림 조합연합회에다주는 이득을 주는 원인을 알수없읍니다마는 반드시 주어야할 경우에는 조례로서 어떠한 행정 조치로 어느범위와 한계 거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농지과에 있어서 특히 시장이 사무 간소화 또한 민원서류 즉결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과에 서류하나 온것인데 금년 3월24일자와 6월 11일 남대문구청장이 또동시에 시장앞에 공문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려 4개월 내지 7개월동안 하등과장에게 품의도

안하고 계원이 설합속에 가지고 있었다고하는 사실이 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시정 방침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으며 차제에 미결건에 있어서 조급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암동 농지개량계장 박○풍씨에게 배정된 양회 22톤에 대하여 인도지시는 했읍니다마는 수령증물건과 받았다는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농지상환에 있어서는 지극히 상환액의 건수는 많이 있읍니다마는 상환곡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않은 것이 수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다소 그당무자들을 말씀들어본다고 하면 지적 정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해주지않는다 그러한 예는 다소 수배됩니다마는 이것은 관계 당무자가 조속히 세무서당국과 절충하셔서 가급적 상환완료된 사람에게는 속히 소유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당한 소유권 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을 만들게 하는 행위라고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량과올시다. 주로 자량과의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곡가 조절미 그 포장 한가마니 올시다. 한가마니를 유가해서 돈을 받고해서 하고있는것입니다마는 단기4290년 5월 17일 부시장 명의로 각구청장에게 시달된 내용을보면 서울산업회사에 회수케하고 그회수금액은 한가마니에 70환씩에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를 자량과장에게 물어보았읍니다 마는 다소이해하고 시정할점도 있읍니다마는 이 70환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경제 체제에 입각해서 그때 급소에서 임의 처분한다고 하면은 80환내지 85환을 받을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 부시장이 공문을 발송함으로서 일정하게 70환이라고해서 배급소에서 다소이익을 볼수있는길을 막지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금액을 그대로 방치해둔다고 하면 다소라도 배급소에 이익을 가져오지않을가 생각합니다.

이 세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있으니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보고를 드리는것입니다.

다음은 배급소 설치에대하여 4290년4월10일자 현재의 배급상황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나 그후 각동의 사소한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마치 동장들이 인기 전술과같이 난립상으로 마포구 및 영등포구와같이 각동마다 배급소가 증설되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민들은 다소 지역적으로 편리를 도모할지 모릅니다마는 배급소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인 복잡 또 시간적인 낭비는 막대할것이며 이에 속반한 종업원도 증원해야 한다는 단점을 생각할적에 다소개인의 편리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이배급소 설치에 대해서는 12분 고려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바이 올시다.

각구청에 대해서……중구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 있어서는 전력사용합리화운동전개라는 내용은 건설하고 좋습니다마는 이 전력사용합리화운동을 간단히 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이점을 각동장에게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거기서 결과보고를 받고 이러한 사무적인 폐단과 용

지만 소비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전력사용합리화 운동하는 것은 동장 및 지방 주사 회의시에 지시만해도 충분히 실시할수있는줄 믿습니다. 이것을 시간과 허다한 용지를 낭비해가면서 공문을 발송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줄 압니다.

그러므로 차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에서는 각종증명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무과장 직무과장이 전결사항으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무규정의 위반입니다. 각구청에는 과장전결사항이 없는것입니다.

이것은 처무규정에 위반될뿐 아니라 행정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또 곡가조절미 방출에 있어서 각배급소와 일보집계사무는 중요한것입니다.

이것을 허다한 정정……진것도 말할수없이 지어놓고 거기 대한 정정인이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자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 각구청이 대동소이한 처사였습니다.

서대문구청의 은평출장소를 가보았읍니다마는 거기서는 다소 사무적인 증명서를 발부하는데 소장의 일일히 결재를 받여가지고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이유를 물으니 토지매매 등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장의 결재를받아서 발부한다고 했습니다. 서류같은 것은 은평출장소가 우수하게 보책정비하고있었다는것을 이기회에 은평출장소에 찬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마포구청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서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다소 작년보다 나아진 점이 약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그산업계서류를 본다면 8

할 9할가량은 처무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說憑書 축산사무취급의 등록관계를 계원혼자다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만 계장한테 결재도 받은 것이 아니요 계원이 임의로 등록증을 적어주고 구청장의 관인을 남용하고 교부대장하나 없이 계원단독으로 발행하고있는 사실이 올시다.

다음은 용산구청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청도 역시 처무규정에 위반될뿐만 아니라 타기관에서 들어오는 공문자체도 이것을 청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다시 회보해 주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4290년1월26일자 서울관재국 용산출장소 장으로부터 공문을 내보내왔는데 이것을다만 청장에게 과장 계장에게 보고도없이 계원이 임의로 자기가 결정해서 관인을 찍어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정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건 歸囑林野에 관한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자량과에 있어서는 정부관리곡가조절미곡도정에 있어서 서울시 14개소의 정미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숫자상은 나타나지않았읍니다마는 거기서 보리를 도정하면 부산물이 나오는데 부산물역시 임의로 처분하는예가 허다했습니다. 여기 14개공장에서 2개정미소를 설치 가보았읍니다.

남창정미소와 동남제분소를 가보았는데 원맥을 도정함에 있어서 남창정미소에 가보니까 실제 생산되고있는 량이 535가마가 있어야할텐데 실지 배급은 329가마고 나머지 208가마는 임의처분한것입니다. 동남제분소가 300가마에서 열가마를 임의부정처분했는데 이것들을 한가마에 4백환식 임의로 처분착복한것입니다…….

○의장 박명준; 강의원 잠깐만…….

우리가 보고를 듣는 이 자리에 의원석이 많이비었습니다. 안될일이 올시다. 그리고 너무 자리를 떠나서 소음이 많으니까 보고하는분이 아무리 힘을들여서 해도 효과가 있다고할수 없으니 각의원 여러분이 자리를 뜨지 말고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강을순 의원; 끝터리 56페이지(감사보고서)를 보아주십시오.

거기 자유처분한 8십2만4천환정을 십9만8천4백환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만 오늘날 정부미를 도정하는데 있어서 이런결함이 가져왔고 이것을 시정하지않으면 안될 몇가지를 지적해 두는것입니다.

보리를 1,700백둔을 정미소에주면 부산물이 율이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산물을 약1,000가마라고 된다면 정미소에서 허위로 약500가마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름같은때 필요없을적에는 필요없습니다마는 현재는 배급가격보다 3배의 시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율을 결정한다는 것은 농림부가 결정한다고 당무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정부가 할 것은 하드라도 서울시가 적어도 1,000둔에서는 몇가마가 나온다는 假率을 결정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렇다고하면 기술적면에서 대동소이한것입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횡령할 길이 없는거예요 또한달동안 부산물처분기일을 준것이 큰모순성이 있습니다. 원료를 주는동시에 율을 결정해주면 이사람



들이 횡령을 못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假率을 결정하고 또 사료를 어느정미소에서  
○사료라고 인정할수없는게 있고 또어디는 잘된데가 있고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부산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검사를 안하고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가급  
조속히 부산물을 합리화하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부  
산물의 검사규정을 실시해줄 것을 건의하고 말씀드립니다.

왜그러냐하면 정미업자들이 들으면 좀기분이 좋지않게 생  
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이 사료를 두가지 세가  
지를 빼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것 하나는 나쁜 것으로 빼고해서 나쁜 것을 배  
급을주고있는 현실입니다. 이점을 십분유의하셔서 율을 결정  
할거와 또한 부산물검사규정을 실시해줄 것을 요망하고 본산  
업위원회 감사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산업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는 일로서 보고를  
더하실 것 없저.

(「없습니다」 하는이있음)

그러면 이걸로서 감사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광 의원; 건설위원회 시정 감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관계것은 말미에 돌리기로하고 각구청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행정구역으로 9개구청을 감사한 결과에 있어서 대  
부분의 항목에 있어서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년전 제1차 감사시에 있어서의 본의원이 또의회에서 지적한 사무에대한 과거의 결점을 많이 改備되었다는점은 또한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것입니다.

구청단위로서 일일히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의당하리라고 믿습시다하는 시간의 제약과 앞으로올여러가지 안전처리에 있어서 요약해서 중요한 부문만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우선 구청건설과로서 하여금 가장중요한 기간사업의 하나인 수도행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가 이수도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적인 과업인 부과사무에 대해서 본청으로 하여금 각구청의 수도량에 대한 배시량을 배당한 숫자를 보건데 중구구청에 있어서 2개월간에 공한 본청으로서의 배시량이 840,114톤이라는 이와같은 2개월에공한 이배시량 그구청으로 하여금 응당 그840,114톤이라는 그숫자 그대로를 점검에 나타나야 할것이요 부과량에 있어서 부과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부과량은 80퍼-센트에 약한것입니다.

또한 종로로 말하자면 2개월간에 공한 배시량을 568,300톤을 받았던것입니다. 그러나 그종로는 중구에 비해서 부과량은 577,200톤이라는 100프로 이상의 부과를 했던것입니다.....

(「몇페-지요?」 하는이있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구청단위로 말씀안들이고 기히 유인물로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것만 말씀드린다고 전제했던것입니다. 양해해주십소.

성동구청에서는 역시 2개월에 공한 배시량이 231,240톤에 부과량은 242,640톤의 100프로 이상의 성적을 올렸던것입니다

다.

이와같은 본청으로부터의 그 송수량에 대한 배시량을 그대로 실지에 부과를 하지못하는 그 외 5, 6개구청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부과사무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양수기의 설치문제가 현하에 있어서 중대한 사업으로 되어있는것입니다.

현재로보아서 그설치가 불과 수도전에 대한 30프로이하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때 이견 인정의 과세를 토대로 한 수도행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인정과세로서 오는 폐단으로서 가족수대로 하지 않고 하나의 정실로서 또한 맹목적으로 5인가족을 18가족으로 인정과세하는 맹점을 시정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는것입니다.

우리 의회로 하여금 급수조례를 제정해서 이사업의 뒷받침을 만들기위해서 정수 단수의 권리와 차압권까지도 부여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분한것을 각구청제로 볼때 이것을 물○ 천분지일에 해당하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것입니다.

사실상 과년도부터 현년도에 이르기까지 징수사무에 있어서 미수액은 무려 40프로를 계상했는데 이렇게 정수등의 처분이 적은 것을 볼때 하나의 의혹감과 이해에 곤란한점은 또한 한이 없는것입니다.

물론 이재산의 사업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하나의법을 근간으로해서 그사업에 뒷받침하기위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치 않는이유 어디있는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수도의 수요자가 정수처분을 위반하고 스스로 수도전을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불적에 점검원 내지 징수원또

는 여기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충실성 여부를 표현되고 있다고 보는것입니다.

특히 중구구청으로말하자면 거기대한 숫자가 타구청을 능가하고있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점을 하루속히 법의 토대위에서 이위반자에대한 문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징수성적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음니다마는 현년도 징수성적에 있어서는 대체로 양호하다고 보는것입니다. 하나 과년도 미수금에 있어서는 하나도 징수에대한 사무적인면 또는 그 외에 예산이하나도 되어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것입니다. 특별히 년년서부터 하○의 중요한 과제로 넘어온 서울시에 목욕탕업자로 말하자면 이를 이수량을 연상 소득하고 있는것입니다.

이업자들로 하여금 수도요금 인상에 보충은 시비로 오늘날 47개 이상인 업자들로 하여금 전년도에 대한 수도사용료에대한 감액운동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이로인해서 구청 단위로 통일에 해결을 보지못하고 본청과 타협을 진행하고있다는것이고 또사실을 알고있는것입니다.

이와같은 문제는 단시일내에 피차간에 해결책을 모색해서 시수도사용료 세입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하기를 또한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사용료 징수가 현하에 물가고와 경황에 이르는 본연에 있어서는 분납제를 실시하고 있는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분납제에 왈가왈부는 피하고 이문제로 인하여 오늘 징수원들이 그 ○해를 스스로 자내는 이와같이 설계할적에 이문제를 또검토하지않으면 않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것입니다.

특별히 징수사무는 오늘날 제도 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실 또한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징수를 해가지고 와서 응당 각종대장을 소정사무에 있어서는 즉각 즉각 이것을 수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사무가 어떤 구청에는 약 10일이 상 20일에 공한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극히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소망은 서무에 대한 것은 즉각 즉각 施乃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구토목비에 있어서는 대체로 금년도에 영달된 내시를 그대로 시행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는 모구청에 있어서는 그토목비 자체를 운영하는데 복잡한 그설계와 ○공원을 고려한 나머지 본청과에 여러가지 관계도 있었읍니다만 그와 같이 과정을 필한 후에 하나에 공사를 착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있어서는 이설계를 변경한다든가 기록에 운영을 한 것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에 압력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중요한 위법이 없는한 규정대로 그공사를 완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구토목비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업자에 소홀한 감을 우리로서는 발견했든 것입니다.

다수에 업자가 擔耐할수있는 시일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구구청에 있어서는 불과 공고 기일을 2일 내지로 단축했다는 이 사실도 엿보는 것입니다. 그외 구청에 있어서는 십여 일을 공고한 이와같은 사실도 발견되었든 것입니다. 나가서 서류상으로 볼 때 일반 경쟁방법은 지명입찰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의 사무적으로 착오가 아닌가 보는 것입니다.

건축관계에 있어서는 대체로 사무적면은 양호한편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 모든것이 사무적인 설계만에 국한되어있는것이요 설계변경이라든지 또한 시행면에 있어서는 설계가 판이한 시행을 하는 이와같은 자체를 검토하지않고 방치해둔 이처사에 대해서 과거부터 내려오는 그릇은 말하지못했다는것을 또 지적하는것입니다.

적어도 그설계서와 설계서는 그공사에 중요한 생명인 것이며 그것을 토대로한 그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계정면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계정을 발견할적에 기술자가 가지고있는 배○ 그네들의 기술면……. 또한 졸렬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하는것을 지적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이상과같이 대체로 구청에 대한것을 말씀드리고 본청에 드러가서 절약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과 ○무계에 있어서 대부분에 서류문제는 예년에 비해서 비약적인 처리를 하고있는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 수도비 확장비를 거기에 ○요하지않는 많은 경비에 충당되었다는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에 수납계에 있어서는 도로손상부담금 징수에 언급하게되면 여기에 나와있는 일람표와 여히 전년도에 미수금이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있는것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예년 사무감사 또는 회계검사당시에 지적한 그대로인것이며 금년도에 있어서는 작년도부터 내려온 ○재창고 내지 거기에대한 사무처리에 있어서는 예기하지않는 정도에 정리 내지 서류가 정비가되어있는것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 관리과 기타 사업체인 운○사업체만 언급하겠습니다. 이것은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운○사업청(청장 지방이사 강석기

4289년10월29일 부제1차 시정감사시 당시업청도 감사를 실시한바 건설위원회로서 지적할때 본 사업청의 현상유지는 불가능할것이며 정당의 운영을 기대함이 무모한 일임을 명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진전도없이 재래적인습으로 고착운영되고있음을 우선지적하지않이할수 없으며 금년도 제2회 감사에서도 역시 본특별회계사업의 무궤도한운영을 또한 논술하면서 별지 참고자료에의거한바와같은 연혁을 보건데 본사업청설립은 4265년4월2일에 되었으며 기당시 공청자본금 3000-(6000주)금액불입으로서 왕십리 동대문간 연장공사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하여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별지설명서와 여한 증거로 사업중해방을 마지하며 차기업체의 성격이 기산임으로써 새로운 관리인을 임명하였을때 초대관리인으로 현청장 강석기를 임명하고 기후 4287년4월1일에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46조에 의하여 공영기업체로서 궤도 관리청으로 청장 김석명을 임명하고 4289년6월9일에는 운○사업청으로 청장에 김교홍을 임명하였음.

다시 4290년 3월11일현청장 강석기를 보직함에 至하다. 집행부당취자는 본사업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사업의 기본인 인사문제는 각구청또는 본청에서 하나의 형식적 교체로서 사업청이라는 기술본위를 등한시하여 사실상 적격자배치를 소홀히 하여왔으니 이로인하여 궤도의 전차 또는 부대되는 부속품의 품명조차 아지못하는 형편에다 자동차운○관계의 기술자를 배치못함으로서 물품의 구입과 기관의 수리등 작업원의 요구대로 응할수밖에없는 처지에 이었으니 사업자체의 운영보다는 자기개인의 이해관계를 선행시킨것인데 이는 예정가격의 무식으로해서 시가의배 또는 필요이상의 세출을 초래케한 원인을 조성한 현황을 이루게 하였으며 종업하는 인원

에 있어서도 총173명을 등용하고 있으나 기업체량이나 규모를보아 기반수로서도 능족하다고보며 ○래 정원인 157명에 초과된 173명을 채용한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치 않을수가 없음. 왜냐하면 이는 현재의 ○영상황을보아 매표등도급으로서의 시행이 (별지계약서참조) 능히 기운영을 충당할수 있음을 입증할수있기때문임.

물론기업체로서의 당청의 제규를 준수○는 애로도 모를바 아니며 각종시설의 노후도 고려치않는바 아니나 적어도 서울행정구역내에서 제일조건이 구비된 전차 운○에 또는 선로가 시내에는 선보다도 가장 승객이 많은 입지적인 가치를 생각할때 기간○년내시가 전입금을 투입하였고 또한 일시해로 그에 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황통계로보아 별지와여한 적자표가 작성됨을 볼때 爲先 기우위를 찾아하는 자동차 사업부터 재검토치 않으면 않될것이요.

또한 전차궤도의 확정과 전차의 노후분○생과 증차를 함으로서 승객의 편의와 ○입에 확보를 하여야 특별회계의 설치 또는 시가 영위하는 본래의……. 공영기업으로서의 면목을 발휘되리라. 고찰할때 적극적인면에서 이상논술한 제반시설개량의 필요자금과 부채청산을 위하여 장기채로서 4억은 요하니 관계당무자는 신중을 기하여 서울특별시의 중대과업의 건위를 차지하는 운○청을 ○기적으로 궤도선상에 안치하도록 할 것이며 매년 기천만원의 전인 (보조) 금으로서 계속운영한다면 시민으로부터의 오는 비난과사업청의 부패를 면치 못할것이니 차라리 공유화하여 시당국으로서는 관계치 않음이 실명한 시책이 아닌가하며 연혁과 중요재산을 토대로한 별지문건과 예산집행 각종공사통계를 공개함과 현재의 운영능력및 실적을 재료로서 별지첨부하여 참고로 供함.



이상으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서울시에 하나에 증대한 운○사업청에대한 문제를 논급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선과는 대부분이 위탁공사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각종공사별로 단가와 거기에대한 세밀한 부분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중 여러분이 신년도 예산에서 심의를 하신중에서 중요한 서울시 운동장에 대한 확장공사와 우남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남회관 신축공사에대해서 총설계 예산은 6억환인바 년차 예산으로 시공하고있는 상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오늘날 시가 예산을 책정한것이 3억5천만환인것입니다.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항에 있어서 2억3천9백8십만환 제1차 준공으로 7천8백4십만환 제2공사로 1억6천4백만환 과년도 타절액 1억2천5백2십8만5천3백5십8환 그래서 제1차로 7천8백4십만환 제2차 타절준공액이 4천6백8십8만5천3백5십8환 이것이 과년도 타절공사로 끝난것 입니다.

그후에 4290년도 계약고를보면 건축으로 1억1천4백5십1만4천6백4십1환 전기공사로서 1천백십만환 위생급수 1천9백8십만환 그래서 계약고계가 2억7천7십만환 그중 사무비 1만2백환 합계 2억8천백만환을 현재……하고 있는것입니다.

그중 현재로 지출총액은 1억9천3백6십1만5천환 미지출액은 공사에 진행상황에 있어서 88년도 오십 「푸로」 90년도 75 「푸로」 이것이 계약고에 대한 공정인 것입니다.

전체 예산상으로볼때 미지출액 8천7백3십8만5천환지출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계약 공정완료시에는 26푸로의 공정을 보는것입니다.

당초 계○설계액 일금 6억환에 대하여 집행액 2억8천1백만

## 환이고

공사비 공정을 보면 시설물은 이미 46%의 기성공정이 되어있어야할것인데 26%의 기성공정 (계약공사 완료시)이라함은 결과적으로 본공사준공까지 당초 예산액 육역환으로서 완공될것인지 의문되는바이며 본회관의 건립의 의도한바 시민의 공관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되나 기위치의 선택이 관청가로라는 점은 창안자의 默劣이며 건립비의 과중한 재정적인 면을 고려하지않고 무작정 착수하여 일대 사회적인면에서 서울특별시의 금일의 재정상의 궁핍상태를 초래하였으니 당무자는 차회관건립에 소요되는 재정면을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자고로 국가초비상시에는 특별한 변혁이 없는한 사회경제에 영향을 과급식히는 모-든 대사업이 중지되었든점을 상기식힘.

서울운동장내 야구장 확장공사에대하여 본야구장확장공사의 예산과 집행상황은 여좌함.

### 예산상황

년 도 별	예 산 액
단기4288년도	150,000,000환
단기4290년도	50,000,000환
계	200,000,000환

### 집행상황

과년도타절준공액	48,580,000환
90년도 계약고	29,650,000환
계	168,230,000환
지출액	77,655,000환
잔액	90,575,000환

### 시공진행상황

단기4288년도 ○0% 계약고에대한 공정

단기4290년10월말 75%

전체공정 35% 설계액에대한공정률

단기4290년5월○ 야구협회장 이혹시의 진정에의하여 공사설계를 변경하고 제2차 공사로 입진준공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전체공사에 35%공정을 시현하고 있음.

그 규모에 있어 관람인3만명수객을 계획한 설계로 시공하는데 국제경기대회를 목적하는 이상 규모협소함은 유감됨.

제한된 면적내에서 거대하고 유효적절한 야구장 공사설계를 한 지방기○ 윤병렬은 고안의 열성과 창의성이 설계면에 여실히 표현되고 있음.

그다음은 도시계획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도시계획과도 여러가지 그부분적인면을 이안에 삼입했기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물의를 이르고있는 국제극장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잠깐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24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

1. 건축행정이라함은 두말할것없이 생활양식의 중요한 일부이며 도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있는 이만큼 건축행정을 잘하면 근대도시의 미관이 나 방화시설한서 위생시설등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적인 규모로 진보시킬수 있으나 반면에 기술을 무시하고 법규를 소홀히함은 기정계획을 침해하고 타인을 ○○하며 공공재산의 관리를 그르치는 매사에 백년대계를 위태롭게하고 말것이다.

2. 현하 서울시 건축계행정을본다면

건축허가신청접수건수 1,332건

건축허가건수 996건

불허가및반려건수 306건

기타 30건

으로 되어있으나 완전준공으로 입주사용허가건수는 45건에 불과하고 잔여 900여건은 실지로 입주사용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계도 제출치않고 또 당계에서 감시를 소홀히하고있는 실정이니 작년에도 감사시지적인 문제가 시정되어있다고 볼수 없으며

더욱이 중요한 문제는 권력층이 로-타리(광장) 공원어린이 놀이터 등등을 당초 계획과는 상반되는방향으로 私用化되어가고있는 현실이며 대서울시 생활권을 10여년전에 수립하여 계획적으로 진행중인데 상기한 계획지역내의 부지는 건축지로 사용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케함은 위법이며 기부지가 사유지일지라도 건축할수없는 지역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 내지 차용인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계획에 의하여 당연히 일정해야 할것을 도시계획변경까지 해주어가며 허가하였고 더심한것은 여사한 부지에다 무허가건축을 자행하는 등 부당한 처사가 허다함은 목과하기 곤란하여 기사례를 열거 지적코저함.

남산공원지내에 단○○○신○적을 중심으로 부지 7194평과 동지내에 건물과 지상수목일절을 단기4289년1월12일자 서울 사세청장으로부터 한국군경유자녀○원장○최기석명의로 불하를 바더 현재 송의여자중교등학교를 건립중에 있는데 남산공원이라하면 일제시기설공원으로 책정되어있는것을 국유지라하여 중앙정부의 자○위치를 가리지않고 불하한데서야 공공용의 국유림이 잔존할수가 없을것은 물론이다. 그렇타고해서

불하하여 공익의 기여하지말라는 말은아닌것이다. 남산공원으로 말하면 서울시민의 안식유휴지대이고 공원으로서의 가치도 두말할것없는 요지인것도 시민이 잘알고도 남음이있다는것으로서 중앙으로서 불하를 하려면 당시에 일차합의는 하여야 할것이고 내무부와도 사전타협쯤은 있어야 할것이다. 만약 합의절차가 있었다하면 기설공원지대를 불하해주리라고할 리가없다는 전제하에 논하는 바이다.

4. 또한 불하와는 별도로하고라도 건축허가를 신청했을때 당시로서 허가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순차를 변경하여가면서 가건축이라는 명목으로 허가한 처사야말로 부당천만한일이다. 가

이렇게까지해서 허가하지않으면 안될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기후 건축공사진행과정을보면 건축허가신청자는 재단법인 숭의학원이사장 박현숙으로되어있고 건축하기위하여 당시로서는 하등의 이유도없이 기설된 공원에 순차계획을 5차○위로 단기4289년 8월말에 변경하였고 동년 9월초순에 가건축명목으로 허가되어 일부 2층 일부 3층을 철근공크리트조로 교사를 시공하였는데 기공사자체가 결충기에 소홀한 시공을 한가닭인지 ○사로서 건물의 생명인 지주삼본이나 절단되고 절단된 그위에 계속 건축시공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점을 시당국에서 知審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허가취소나 공사중지를 식이지 안고있음은 이해할수없는 처사일뿐만 아니라 학교로서 사용하다가 만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책임을 誰何가질것이며 인명의 희생자가 生할때는 었지할것인가? 적어도 기술행정을 담당한기술당무자들은 건물자체가 완전치 못하여 장래 사용시 구조역학면으로보아 부족하다든가 시공이 불충분할때에는 즉시 직권을 발동하여 해체케 할것이 당무자의

직무일것이다. 뿐만아니라 불법 「무허가」 으로 전기불충분한 건물에 일부 3층과 일부는 4층으로 계속건립하고 있음을시당 국은 기히 知審하면서도 차가건물을 해체시키기커녕 중지도 양이시키고 계원이 공사중지 품의가지 상 신하였음에도 운운 함은 부당불법도 유분수이지 고위권력층들이 이러한 건물을 건립할수없는 지역에 겸하여 부정공사인줄 알면서도 고위당 국자들이 강행한다는것은 법질서의법의 권위를 무시하는것이 며 당시 전체의 건설과 도시계획사업을 과멸에 빠트릴 우려 가 되며 통탄할 일이다.

이상 도시계획면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잔여 토목과 수도과 의 문제에 있어서는 김경원의원……김재순의원이 논급하기로 하고 본의원은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다음은 김재순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여기에 감사보고는 잘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순 의원; 유인물 폐-지수는 백삼십팔폐-지 부터서 이백사십일폐-지 여기에 감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간단히 말 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문제인데 이수도과는 본청 구청 병합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본청에 있어서는 작년 시정감사시와 금년에 비교해볼적에 비약적으로 사무정리도 잘되고 또본인이 느낀바 작년보다 수 도행정에 있어서 정돈되어 가지고 특히 수원지라든지 배수지 에 있어서 그모든 시설이 정비되어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로 찬양할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수도행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것이 이양수기입니다.

즉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이우리가 수원지를 만든다할지라

도 우리 일반시민이 물을 너무 남용한다든지하면 암만 수원지를 만들어도 역시 큰효과가 없다는것은 여러분도 잘아실것입니다.

현재 각가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양수기가 달려있지않기때문에 특히 영업하는 이장소에 가보면 물을 24시간동안이나 쓰기때문에 지금 암만 물을 배수한다고 할지라도 그압력이 약어지고 또수도요금 조절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비법적 사실이 판명된것은 여러의원이 잘아실것입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감사시에 있어서 이문제를 조사하기위해서 각구청에 양수기 관계를 제가 조사했습니다. 유인물 223패-지 일람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회수한 양수기가 1,400여개가 되는데 이회수한 양수기를 신품을 산것이 약20,000여개를 사가지고 각구청에 할당한것입니다.

그런데 이구청에 가보면 양수기를 어느집에서 회수했는지 이러한 대장조차없는 구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서대문구청같은데는 대장만들 생각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왜이대장이 필요하게 되었느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양수기는 좋든지 나쁘든지 오년동안쓰면 한번 바꾸는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꿀때 삼천환 ○○이드는데 헌것을회수해다가 새로 달어주고서 삼천환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집에서 떼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본청에서 신품이 온것을 새것은 6천3백환인데 6천3백환받고서 달어주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장이 없기때문에 정말로 회수한 개수를 대장에서 찾아볼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또한회수품을 본청에 바쳤는데 본청에서는 많이 받

었는데 구청에서는 얼마 바쳤다는 수자가 많지않습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이구청의 수도행정에 대해서는 차후 특히나 본청에서는 감독을하고 철저한 단속이 있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여기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중대한 문제는 그2만여개의 양수기를 수리 내지 신품을 구입한 금액이 8천2백2십7만환 들어서 2만개를 사들인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대한 대금이 각구청에서 들어온것이 얼마나 할것같으면 약4천7백만환 그러면 나머지 3천 몇백만환이라는 돈은 아직 안들어오는 미수입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징수액이 3천몇백만환이 있다는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고 여기에 큰문제가 있습니다.

88년이후 그새로 수도를 노려면 반듯이 6천3백환식 시민은 양수기대로 바쳤습니다.

그 건수가 몇건인고하니 그일람표를보면 7항에 1만8천여건을 갖다가 제 신설해 주었든것입니다.

즉 1만8천건에 대해서는 6천3백환시 양수기대를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약7천만환돈이 여기에 받은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7천만환돈하고 이미징수액 3천몇백만환 ○면 약1억환이라는 돈이 행방이 없는것입니다. 이행방이 없는데 현재 각구청에 재고품이 구청과 본청의 재고품은 제일 싼가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5, 6천만환은 될것입니다. 이점에 있어서 감사한 기일이 없기때문에 물적 증거는 잡지못했습니다마는 대개 여기에대한 자세한 말씀은 차후로 하기로하고 이일람표에 쓴것을 물으기 위해서 각구청에 두번씩 최봉수의원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수자적인 증거서류를 받아가지고 이수자를 만든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대략 말씀드리고 208페이지부터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관계 즉야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수리품이……신품이 6,964 수리품이 13,047개 합계 20,011개 우리 서울특별시에 서는 收得 이후 양수기를 할당을 했는데 그러면 이양수기할 당하고서 수령한 수자가 이것은 구청의 장부와 맞지않습니다. 이것을 차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210페이지에 즉 각구청에서 대금 수납관계 그표가있고 우와 여히 매각및 수리 8,501개분에 대한 대금 4천7백9십9만1천7백8십7환이 본청에 납부 되었으나 좌기와 여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음.

이것은 신설 급수설치의 대장이 미분명한점 즉본청에서 양수기를갖다가 할당했는데 그양수기를 받아가지고 그회수한 대금이 일정해야 할것인데 회수한 지금 그대장도 없고 달어 주었다는 대장도 나는 못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순이 있다는것이고 두째번에는 매각대, 수리대의 단가가 각구청별로 동일치않습니다.

이양수기 신품이 6천3백3십환이다. 그랬는데 각구청은 5천환받고 어느구청은 6천환받았으니 여기에대한 모순을 지적합니다.

세째번으로 배정량 일람표 사항에 있습니다. 19,939개중 처리한 개수가 8,501개 및 각구청재고량 1,114개를 공제한 잔량 10,324개를 매각대금으로 계산한다면 약6천만환이 가정용이고 수리대금으로 계산한다면 약3천만환이 미징수액에 대한 대장정리관계가 미분명한 점을 방임하였으며 징수액에 대한 독려와 사무적 지도가 불충분한 점즉8천여만환의 그세출을 가지고서 지금 3천7백만환이라는 현금이 안드러왔는데……남어지 돈을 빨리받으려야 할것인데……이것은 본청

에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4 신설급수공사건수 (일람표 14, 15항에의함)가 7,378건이며 여기에대한 기위징수한 양수기대금 약4천4백만환에대한 금액 전액을 매각대금으로서 본청에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매각분 5,922개를 공제한 잔수량 1,456개분이 미설치분으로되었고 구청대장에 의거하면 1,867개(대금약1천백만환)을 수년이 경과된 금일에至少도록 미설치되어있음은 기○면을 의심치 않아할수없음.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이것은 사실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스러운것이 남의가정에 있는 양수기를 뜨더다가 본청에 바쳐놓고……그뒤에 달어주어라했는데……판데에다가 달었다 그말이에요.

새로 신설하는 급수공사장에는남의 집에 있는것을 뜨더오면 3천여백환이라는것은 횡령할수있는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내가 이것을 의심하는것입니다.

의심하느냐? 대장에도 없으니가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5회수총수량 14,291개중 본청에 수리분으로 대금 납부한 2,679개및 대금 미징수분이 10,324개가되며 전수량을 회수한 수요자측에 설치하였다 할지라도 1,288개와 미설치로 되어있는것으로 인정않이할수없고 따라서 각구청재고량 1,114개를 제외하면 174개가 부족분으로 계상않이할수없음. 암만 선의로 해석해도 이러한 수자가 정말나옵니다.

여섯번……우리가 선의로 해석한다고할지라도 1,114개가 부족합니다.

여섯번에가서 신설급수로 사건수가 7,378건중 본청에 양수기 매각분으로 대금이 납부된 5,922개의 전수량이 신설급수공사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1,456개가 부족분으로 계상할수

밖에없고 구청대장에의하면 1,867개가 미설치분으로 되어있으니 결과적으로 2,041개가 부족이라고 지적아니할수없음. 여사한 부족량은 양수기 10여종류중 가정용 13모평균 6,000환 단가로 계상하여 지적하였으나 기외에 좌기와 여히 1,568개대에대한 차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징수한것입니다. 그러면 각구청에서 새로 신설하는데……돈은 받았는데……달어주었느냐? 안달어주었느냐……?사실 않달어주었습니다. 1,400여개소입니다.

아주 제일 싼가격으로 1만환부족량이 나왔는데……217「폐-지」에 표가 있습니다. 양수기중 서울특별시에 쓰는것이 약십여종류가 있는데……우수량 1,568개중 각구청에 할당배정한 1,721개를 공제하고 (본청장부에 의함) 금액으로서 가정용 13모(단가 6,330환-5,588환) 환산하여보면 13모양수기 1,721개가 또다시 부족되니 총수량 3,726개가 부족수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의로 해석하고 구청에서 한그대로할지라도 가정용 13모 3,761개라고하는것이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우와 여히 양수기 3,761개가 계수상 미공에 함입되어있지 않다고 많이 볼수없으며 구청대장 조차 정리되지않고 있으니 그○면을 의심치 않을수 없으며 당로자들은 부족수량을 충당하자면 현시가약 36,000,000환(90년 8월30일이후 13모 양수대금 9,595환으로 인상되었음)에 해당하는 변상책임은 관계관인 각구청장및 건설과장이 저야하며 단호한 조치가 취해져야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대해서 우리가 극구관심을 두지않으면 않될점은 이제까지 양수기가 6천3백3십3환으로 상공부의 지정가격이 금년부터는 5, 6할……9천여백환부

터 만여백환까지 올라났습니다. 그러면 5, 6할의 올랐는데……이것은 우리 시민한테 6천3백환씩 받았다고 달아주지 않고 판매에 달아주고 달라는것을 우리 시민은 물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산해서 달아주면 막대한 부담이 생기는것입니다. 전술한바와 같이 수도행정의 암이되는 제점을 강력히 시정하지않으면 앞으로는 현재보다도 형언할수없는 수도행정에 암흑을 가져올 우려가 유하다고 단정치않을수없는바 집행부 책임자는 특별유의하여 수도행정에 명랑을 기하여주기 바라는바입니다.

그런데 여기 26 「폐-지」 에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연구하고 집행부와 여러의원들 사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개선하지않으면 암될점이 있습니다. 양수기제작소 제작하는 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한군데 있습니다. 있는데……이제작소를 ○면으로 내사한 결과에……이회사는 일정때에 ……25년전부터 근무하던 직원이 그분들이 지금은 회사중역이 되어서 직접 일을하고있는데……생산품이 그다지 손색이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별표에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양수기를 이만여개를 달았는데 4할도 못쓰고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여기에대해서 실지 나쁜가? 았나쁜가……일회 내지 이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그제작소 사회와 시집행부와 합동으로 조사를 한결과에……물론 양수기 제작에대해서 나쁜점도 있었읍니다만은 여기에 큰암이되는것은 막대한 공무원의 비행사실이 나왔든것입니다.

그양수기를 갖다가 검침할때에는 소홀했다는것이 사실입니다.

그구청에가서 대장을 봐도 맞지않고 계수가 맞지않기때문에…….

그때에는 자기의 잘못이 나타나면 그것을 부셔요 또 양수기를 달었는데……수도요금도 이렇게 많이올라 여기에 대해서도 부셔요.

그러면 현재 양수기를 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양수기 이만여개중에서 4할도 못쓰고있는 책임은 那邊에 있느냐……. 이것은 막대한 공무원의 비행과 비행을 갖다가 숨길려고 갖다가 양수리를 부실수밖에 없는것입니다.

한번은 면할수 있으나 단사람이 가보면 그것을 부신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양수기회사직원을 비밀로불러서 물어보면 양수기는 이상없다 그말이에요. 먼저같이 조사해보고하면…… 책임추궁하면……공무원한테 내가미움을 받으면 앓된다는 이러한 얘기까지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요망하고 싶은것은 지금 사무적으로 교양시켜도 좋습니다. 좀더 우리 서울특별시 수도과의 기술자를 기술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될것이며 막대한 공무원에게 각별한 주의를 시켜서 이제까지 썩고 썩은 막대한 구청의 수도행정을 시급히 명량히 해주지않으면 앓되겠습니다.

오늘날 특히……수도과장하고도 상의했습니다. 구청에 나가서 그저 장부정리라든지 혹은 각과도 순시해서 정말로 이것을 확실히 대장도 만들어놓고 이것을 밝히며 조사하지않으면 우리 서울특별시가 배수지나 수원지를 만들어봐도 소용없는것입니다. 수원지 확장공사보다도 양수기공사를 빨리해야될것이며 양수기공사를 완전히 하는것이 급선무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근거로서는 지금 막대한 배수량이 있습니다만은……결국 돈들어오는것은 6할도 못들어온다고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수도가 공무원의 비행이 수자적으로 나타내고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주목 구구로해도 지금 사천여만환의 돈이 행방불명인데……양수기가 이 6, 7월이 올랐으니 이것을 누가 무느냐 그말이에요. 이점에 있어서는 본청 수도과와 건설분과위원회와 건설적으로 쇄신시키고 시정하지않으면 앓된다는것을 여러 의원이 잘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부정 수도공사입니다. 부정수도공사라는 것은 이것은 구청에있는 일부이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즉 신년도예산에 있어서는 각구청에있는 수도계에있는 인부말이에요, 정복좀 해입히고 모자도 해씨우고 그러면 부정못할것입니다. 지금 구청의 직원인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수도행정에서 정말로 본청에든가 또이배수지를 가보면 정말로 작년보다 훨씬 착착 잘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구청에 대한것을 철저히 조사 감독하지않으면 앓될점을 재강조하는바입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시정감사때보다도 그건설과에 열심이었고 또 과거에 잘못을 좀 해보자하는것을 얘기하면 성동구청은 작년에는 장부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장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영등포……. 하여튼 장부같은것만해도 특수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청……. 작년에 수도과의 직원이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십여명이 처단된 이후로부터 새로 수도과장이 부임해서 열심히 하는 그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의회에서 두번째 시정감사를 했는데 과거에 잘못되었는 잘못되었것이고 이제 부터서라도 늦지않으니 장부를

만들어서 잘좀해 봐주는것이 어떤가 이점을요망하는 바입니다. 여러의원께서는 이일람표가 보고서에 쓴것을 심심히 숙고 하셔서 앞으로 질의점도 있겠고 앞으로 집행부와 협력해서 우리가 좀더 열심히 지도감독하면 명랑한 수도행정이되고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작년보다도 수도문제가 착착 지금 특별히 되고있는 이마당에 막대한 구청에있는 수도계에있는 공무원 을 적극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본인의 의사로서는 이기회에 확실히 밝혀놓고 구청장이하……. 구청장이 이러한 비행사실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모르는것이 많이고 감춘것 밖에 안되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번 감사를 계기로해서 명랑한 서울특별시의 행정으로 지향하는데 대해서는 막대한 구청의 무책임을 주장하는 구청장 막대히있는 공무원을 아주 쇠신해 보자 그것입니다. 그리고 본청 수도과에서는 잘했다고 그랬읍니다만은……만리동 수도공사는 작년에도 사고가 났소 그랬는데……그공사가 지지부진한 탓이에요. 이문제가 골치가 아픈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기때문에 특히 이만리동공사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시켜서 마포나 서대문구의 상수도해결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것은 많이있읍니다만은……여러분이 유인물을 보시고 차후에 집행부에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소」 하는이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하는이있음)

(「오후에합시다」 하는이있음)

○의장 박명준; 그러면 오후회의는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의 보고가 다끝나지못했읍니다만은 오늘 오전회의는 이만치하고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보면 대단히 출석률이 좋지 못해서 상당히 기달렸는데……. 오후에는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2시에 속개하기로하고 오전회의는 일로서 끝나겠습니다.

(12시 50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의장 박명준;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출석의원 이십칠인으로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의 건설위원회 보고를 오후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김경원 의원; 미리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토목과에 대한것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유인물에 「미쓰푸린토」가 많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원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많이틀리면 별도로 보고를내주세요」 하는이있음)

집행부에게신 양반한테 미리 부탁하겠습니다. 이유인물에는 상당히 원문과 틀린점이 많습니다. 이점 집행부책임자 되시는 양반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토목과 당해과를 감사한결과 예년에 비하여 통일적으로 사무를 집행하고있어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0년도 토목비총체예산액이 3십2억2백7십3만5천4백환이 올시다. 그중에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비가 8억8천5백4십만9천환 그다음에 시비액이 2십3억3천7백3십2만6천환이 올시다. 10월10일 현재 여기한 내역으로 주로 토목비로서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총액은 십8억8천2백9십만6천5백십2환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된 액면은 국비가 4억천만환 시비가 9억2천9백만환 계십3억3천9백만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미집행된액중 국고보조비가 4억2십만환 금년도말까지 100「퍼센트」를 완전히 집행할수 있겠금 여러가지 계획이 되어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시비 집행부에 있어서는 9억2천9백만원환을 두말할것도 없이 현서울시재정면으로 보아서 최소한도 5프로밖에 금년도내에 집행이 안될것이라고하는것을 대개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액에 있어서는 그집행된액이 55 「퍼센트」 에 불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년년말까지는 회계년도까지는 100 「퍼센트」 가 집행된다는것을 집행부로서 말씀하고있습니다.

시비액의 집행된 률을 보면 약75퍼센트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술한바와 마찬가지로 시비집행은 년도말까지 약5퍼센트를 더보아서 80%밖에 집행안된다고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성적에 있어서는 양호한것으로 우리가 사료되나 4290년도 일반회계 토목비 예산액과 집행액을 분할적으로 나타내려면 푸린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略하겠읍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요번 시 수감사는 현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현장을 대개 토목과에 소속된 공사에 있어서 우리가 가보아서 대개 집행부로서 이점을 시정해 주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점 이점을 몇군데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청량리 회기동간의 하수도개수공사에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도급업자가 협회사 김영필 도급액 2천3백만원환이 올시다. 10월22일 공사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감사한 결과 본공사는 청량리역전으로부터 회기동에 이르는 간선도로하수도개수공사로서 그연장은 1,447 「미터」 로 되어 있습니다.

이공사현장은 과거에 하수도개비가 태반이 해방직후부터 파손이 되어서 장마기가 되면 하수도의 배수가 전연 안되는 관계로 그길은 사람이 보행을 할수없는 정도로서 흙탕길이라고하는것을 우리가 보고있습니다. 그것이 요번의 공사가 만약

준공된다면 그와같은 피해를 면할것이라고 하는것을 대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업자로서 공사면에 있어서 별로 실제의 위약없이 공사에 치중하고 충실히 일하고 있는것을 보았읍니다마는 공사현장에 업자로서 대단히 곤란을 느끼고 있는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점을 집행부에서 잘고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가에 그계획도로에 소재하고있는 가옥이 열동이 있습니다. 그열동중에 7동은 철거하게끔 서류계약이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외에 3동이 철거에 대한것을 응하지않기때문에 공사에 큰지장을 초래하고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점을 집행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해 주지않으면 이공사에 지연을 기해서 동기에 공사가 완성되지않을것이라고 하는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점 집행부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겠끔 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읍니다.

그다음에 정릉천개수공사의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업자 해동건설 정규범 도급액 1천십9만원 이것은 10월23일 날 공사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본것이 올시다 본공사는 돈암동에서 종암동을 경유해서 성동역전 하천으로 연결되는 년차적으로 계속되는 공사라고하는것을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이공사의 연장은 66미터로 되어있는 공사인데 과거에 돈암동에서 종암동 하천을 경해서 성동역전에있는 하천으로 흐르는것을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수해의 우려가되는 인가가 세밀한 위치를 변경하는 이러한 중요한 공사라고 하는것을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현재 이공사현장은 공사가……. 업자로서 진행을 못하고 중지하고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그

공사현장은 연장 66미터 그사이에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택에대한 철거대책이 집행부로서 되어있지않습니다. 이  
러므로써 공사가 진행되지않고 중지되었다는것을 확인했습니  
다. 이문제에 대상이 되는사람은 종암동 동장되시는 김성희씨  
외의 세사람의 가옥이라고하는것을 알었습니다. 이가옥철거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업자로서 공사를  
추진못하고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  
로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문제를 해결하지않으면 이정릉이  
일부년차공사는 지연해서 이월되지않을가하는 우려가 있습니  
다. 이점 특히 집행부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에 지장이 없  
겠끔 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다음 원효로4가에서 남궁동에 이르는 도로포장공사의 현장  
에대한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업자는 중앙공설사  
김희성 도급액은 천7백5십7만원 요것은 10월29일날 공사현  
장에 나가서 감사해 보았습니다. 원효로 전차도로양쪽을 전면  
적으로 과거에 포장되어있는것을 뜯어고치는 이러한 공사올  
시다.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효로에있는 포장  
은 대단히 파괴가 많이 되어서 요번에 이것을 OEC의 원조로  
서 공사를 하고 있는것이 올시다. 과거포장을 뜯어고치고 새  
로히 포장하는 공사인데 연장은 천팔백팔십오미터의 거리올  
시다.

그공사에 대한 대개 중요한 내역을 보면 굴방이 32 6미터  
폭이 8미터의 포장공사올시다. 본공사의 수명에 있어서는 대  
개 기술자의 말을 들어보면 약십년간은 보장한다……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장공사에 있어서 특히 우리  
시민의 관심이 많기때문에 포장공사에 대한것을 특히 많이  
보았습니다. 영등포출신구의원이 여기에 계실줄 압니다마는

대방동에있는 포장공사는 특히 창설사 이연이라는 도급업자가 한 공사입니다. 이것은 아마 현재 서울시내포장공사로서는 제일 잘한공사라고 하는것을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시방 원효로에있는 포장공사는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육안으로 볼적에 이공사는 잘되어 있지않다는것을 우리가 육안으로서 볼수있었습니다.

왜이공사가 이러냐하는것을 대개 여러각도로 알아보니 확실한 물적증거는 았나왔읍니다마는 이공사는 직접 도급업자가 하고있지않다는 이런 풍문이 들어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공사는 충분히 그원조기관인 OEC에서 요구하는데로 완전히 되어있지않다는것을 그동민기타 관계기관에서 말을 하고 있는것같은 풍설이돕니다.

이점을 누누히 공사에 있어서 잘고치도록 우리의회에서 주장하고있는 사람으로서 볼적에 집행부는 이점을 특히 현장감독에게 주의를주어서 차후는 이러한 공사를 하지않겠끔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는 바이올시다. 대체 토목공사에 대한 중요하게 우리가 본 결과 집행부로서 이러한 몇점을 특히 주의해주십사하는것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직영공장에 대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페이지입니까」 하는이있음)

167페이지 입니다. 이본 직영 공장에 있어서 시영내 포장도로 소파 수선공사의 13건을 공사 시공중 준공된 공사가 11건이며 현진행이 3건으로서 총공사액 1억3천7백9십7만환의 실행으로서 준공공사의 노력비만이 청산되어있고……이것 「푸린트」 가 잘안보입니다. 김재광의원 나와서 봐주세요.

○김재광 의원; 당공장에서는 시영내포장도로 소파수선공사의 13건을 공사시공중 준공된 공사가 11건이며 현진행이 3

건으로 총공사액 1억3천7백9십7만환의 실행으로 준공공사분의 노력비만이 청산되어있고 준립 각공사의 청산이 되어있지 않음은 직무태만하며 직영공장으로서는 청부공사키難한 소파수선공사만을 시준공함이 타당할것이다. 신설포장 공사및 복구공사등 청부공사에 附키 용이한 고액공사까지 직영시공함은 이해키 난함.

이것이 원래 직영공장에 대한것이 원래직영 공장의 설치의도가 소파수선에 주력을 두게 되였든것입니다. 그랬든것이 좀더 나가서 소파만 아니라 신설포장 공사라든가 복구공사까지도 여기 감행 했다는것을 여기에서 지적하는것입니다.

○김경원 의원; 다음에 동대문구청의 건축중에서 특히 색다른점이 있기때문에 밝혀 드리겠습니다.

(「몇페이지요」 하는이있음)

이것 「미스 푸린트」 입니다. 동대문구청에서 특히 건축을 잘하고 있다는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있고 따라서 당해 구청은 관내 무허가 건축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기도문 일이 있는데 이점은 특히 집행부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따라서 합법적으로 집행을 해달라는것을 요구하는것이 올시다

90년도 8월초순경에 서울특별시중구 장교동26번지 남북건설주식회사사장 송우범이라는 이양반은 아마 돈도많고 권력도 있는 이런양반인것같습니다. 이양반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43번지 우리 서울시 시소유지에다가 무허가건물 「보러○」 2층건물을 총평26평으로해서 새로 지는것을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발견하고 즉시 우리 동대문구청에 있는 건축계에 있는 의원들이 총동원해서 제지를 했습니다. 동시에 철거해달라고 말을하고 따라서 건축물을 철거시켜 버렸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일날에 이건축주는 물론 금력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기때문에 그러한 처사를 하실는지 모릅시다마는 우리 건축계에있는 구청 직원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다시 그이튿날 건축을 또했드라 이것입니다. 또다시 우리 구청직원들이 총동원해 나가서 제지를 하는 동시에 철거에 강행했습니다. 그래도 건축주 송우범이라는 양반은 여기에서 조금도 응치 아니하고 또건축을 강행하고 있기때문에 발견한 동대문구청건축계에서 우리 서울시 동대문구청 건축계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을한 건설과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그점을 보고하는 동시에 동대문경찰서장한테 철거를 해주도록 의뢰를 정식으로 공문을냈드라 이말이에요. 그래도 그건물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완성이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구청으로서 또다시 계고서라는 최후 통첩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은 훌륭한 이층건물로서 완전히 준공을 보았다는것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실지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그냥 방치해두고 오늘 현재 훌륭한 이층건물이 무허가 주택이 서있는것이 옳시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가지고 사는 이나라에서 특히 대도시 서울중앙한복판에서 그러한 일이있다는것 이것만은 우리가 간과할수 없어요, 우리 구청에있는 직원 특히 건축계에있는 직원들이 여러가지 각도로 제 사명을 다하신것으로나 모든것을 볼때 구청직원들에 대해서 특히 집행부로서 표창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특히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 건물에 있어서는 즉시 의법 처단해서 철거해 주지않으면 장차 우리 서울시건축행정에 있어서는 유례를 만들뿐만 아니라 건축행정을 할수없다는것을 제가 여러분께 역설하지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이것만은 집행부의 책임자 되시는 양반 특히 유의해서

철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입니다. 관리과 소관 자재창고사무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것은 건설국감사한 내용중에 잘된것 잘못된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하지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제차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자재창고에 있어서는 작년 감사에 여러분들이 나쁘다 그것을 인정하고 계셨고 우리가 말할수없었다는 이러한 자재창고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제가 올해 감사한 결과 특히 잘되어있다는것을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10월28일 자재창고 사무소를 우리건설위원회 김재순의원과 둘이 나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창고에대하여 감사할수없는 정도로서 나왔습니다.

장부하나 제대로 되어있지않고 창고가 정리하나 제대로되어 있지않고 해서 어찌할수없는 그러한 무계획적이고 사무적으로 우리가 볼수없었던 그러한 자재창이였습니다. 이창고가 요번 감사에는 아마도 다른 감사에 좋은것도 나타났을줄 압니다마는 아마 감사중 제일 잘되어있어요. 이것은 표창하지 않으면 안되게 잘되어 있는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여하튼지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방동석의원이 특히감사하러 나가서 많은 나쁜점을 지적을 하시고 따라서 본인과같이 감사를 했읍니다마는 정말 서울시재산은 다모다 가지고 있는 이자재창고가 금년에 있어서는 잘되어있는데 놀라지 않을수 없고 장부상으로보나 ○○상으로보나 제가 각구청 유인물에 나타났읍니다마는 각공사장 전부 전표를 일일이 장부하고 대조해보니 손톱들어갈 구멍없이 잘되어있다는것을 발견했읍니

다.

따라서 우리가 창고에 일일들어가서 조사를해보니 사실 상품진열관처럼 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광장에 놓여있는 「파이푸」라든지 철근 여러가지 등등 정리하나를 볼적에 과연이만한면 자재창고가 서울시 재산을 잘보관해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이점특히 우리가 감사반으로서 감동하지않을수 없드라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시 지금 직원여러분에게 특히 독려하는 의미에서 표창을 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감사내용에 대한 보고는 아까 김재광의원의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 김재순의원의 말씀이 있었고 그외에 제가 몇마디 중요한것을 보충보고를 했습니다. 그외에 여러분이 보시는바와같이 우리 건설위원회에대한 보고가 많이 유인물에 되었습니다. 이점은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잘보아주시고

그다음에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에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책정된 예산항목의 유용 내지 전용된것을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시에는 해당전문가들이 상당한 시일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다각도로 연구한후 편성된 예산이라는것은 틀림없는것입니다.

의회로서는 예산안이 제출되는대로 지체없이 내용을 검토한후 무수정 통과를 시켜서 집행부활동을 적극협력하였다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서는 기히 책정된 예산을 항목



별 책정대로 집행하지않고 항목을 변경 내지유용 전용한것을 몇가지 발견했습니다. 이점 우리가 지극히 유감천만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없습니다.

차후로 여사한 처사가 없기를 바라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예산책정및 집행사업안

예산책정이라는것은 기년도내에 재정면의 집행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합의를보아 비로서 예산이 책정통과된다고 보면 집행부로서는 기책정된 예산대로 집행하는것이 의당할것임에도 불구하고 토목공사 및 직영공사에대한 집행을 볼때 보전하여야할 부분이 허다하게 발견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공사를 지명공사비에서 일부액을 분할하여 타공사를 시행하려하고 실로 급하다고 하는공사는 적당한 견해로 주○자행하려함은 물론 심지어는 모공사등에 있어서는 예비비까지 유용해가면서 공사를 시행하는등 건설공사에 있어 현재예정기일을두고 공사는 진행되고있으나 공사장에 관급인 세먼트가 공급되지않어 공사에 큰지장을 초래하고있는 현상이며 따라서 관급으로 되어있는 제관이 예산상의 미집행으로 공사지장을 초래하는등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차후로는 여사한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사배치의 불균형

건설계통인사문제로 爲先 서울시를 문화대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세종로를 중심으로 반경 십오천를 도심지대 외곽지대로 삼분하고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혼합지역 ○지역등으로 정하여 장차 삼백만을 수용할수있는 대서울을 건설할 원동력인 시건설국소관 각과 각계에대한 기술진영을 볼때 인적부족이란 두말할나위없고 기술자로서 기술을 발휘할수없는

기술자가 허다함은 더욱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예거하건데 설계도면하나를 볼때도 측량측정에 있어서 거리측정이 미불명할뿐만아니라 측정계책이 이중으로 설계면에 모순되고 표현케되어 제삼자에 이익을 주는점이 허다하게 발견됨은 기술면으로 생각할때 이해키 곤란하며 따라서 본청도 시계획건축계나 각구청건설과는 사무적으로 볼때는 기술자라면 평범하나 기술적으로 볼때는 기술자라면 자기담당의 관계법규를 알아야 된다는것은 상식이요 건설관계법규가 하권何페이지에 있는지 또어데 해당되는지 잘모르는 기술자를 배치해놓고 건축사무를 집행케함은 실로 한심지사입니다.

기술관계 책임당국자는 차점 특히 유의하시어 장차 삼백만 대서울건설에 萬遺漏를 초래치 않을수있는 건전한 기술진을 시급히 구성하도록 촉구하여 둡니다.

징수사무불철저

수도요금에대한 인정과세를 하고 있다는것 현실에 배치되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것은 우리가 수도행정에서 있어서 특히 개정하지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감사때에는 말씀이 많았읍니다마는 과년도 미징수액이 그대로 나가자빠져있고 하나도 징수되어있지않다는 점 이점 특히 우리 건설국에 대한 징수사무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서 서울시 궁핍한 재정면을 보충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수도행정의결점

이것은 다른것이 아니올시다. 우리서울시수도과에서 각 구청별로 물에대한 배수량에대한 배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와 구청의 실지 나가는 부과된 수자를 보면 배수된액이 부합이 되었지않습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본청 수도과에서 1년배시액에 대한 예산액과 실지면에서 차이가 보통이 아니올시다.

본청은 그배수된 배수량을 가지고 징수예정에대한 예산을 세운다는것이 실지 각구청별로서 조사를 하면 배수량에대한 부과가 되었지않습니다.

이런점에 있어서 우리 수도과에대한 수도료 징수에 대한 여기 (감사보고서) 나타났읍니다마는 이예산액에 한 60프로가 실지 집행되어있지 않다는것을 여실히 나타내고있읍니다. 이점특히 관계당무자 되시는분은 각구청에 배시되는 배수량과 본청의 예산과 부합되도록 집행되지않으면 곤란할겁니다.

실지 본청에서는 천만원에대한 수도료를 예산세워놓읍니다마는 실지 각구청에 배시량에 대한 부과가 십분의 일밖에 되어있지않어요. 이점특히 잘고려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다음 위생관념의 불철저 이번 우리가 사무감사나가는것이 사전에 각구청이나 사업소에 통지가 나가있을줄로 압니다.

실지 우리가 감사를 나가보면 우리 감사반이 무슨 특수한 권한을 가지고 나가는거는 아닌줄로 압니다마는 적어도 감사를 받는사람들이라면 청사청결만은 해노야 할것입니다.

청소가 되어있지않어요. 특히 건설과 같은데 가보면 이게 사무집행을 하고있는건지 이양반들이 장살 하고 있는건지 알수없는 정도로서 위생에대한 관념이 없고 따라서 뭐라고 말할수없는 정도로서 사무집행을하고 있다는것을 발견하고 있는것입니다. 이점 특히 우리감사반이 나간다고해서 특별히 거기대한것을 해달라는거는 아니고 당시 위생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청소를 언제나 깨끗이 하지않으면 곤란하다는것은 이점특히 유의해서 시정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다음 공사현장감독불철저입니다.

공사현장에 나가볼적에 현장에는 담당과에서 반드시 기술자 하나가 배치된것 같습니다. 감사반이 나가서 그배치된 감독을 찾으면 어디로갔는지 없다 말예요. 이 사람들이 감독을 하러나왔는지 놀러나왔는지 모를정도로 하고있다는걸 현장에서 간단히 발견했습니다.

적어도 기술자로서 나가서 감독한다면 「매-도루」 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거 가진사람이 없어요 이런정도로 해서 적어도 공사현장 감독을 할수있는게냐 우리가 말할수없습니다. 따라서 물론 인간이라 정실이 아니 흐를수없습니다마는 공사현장에 나가서 있는 감독되시는 양반이 적당한 감독을 하고있지않은가하는 것이 왕왕 우리눈에 보입니다. 이점특히 유의하셔서 감독출장원에 대한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도급공사입찰지명에 대해서 단기4290년10월말 현재 건설국소관 도급공사는 195건에 도금액 2십3억3천백3만7천6백2환에 대한 지명입찰이 있었는데 지명상황은 좌와여히 수의계약이 12건이며 지정도급업자가 337명인바 1차도 지명을 받지못한 지정도급업자가 147명이나 있음에 반하여 16개업자에게는 7차이상 10차까지의 입찰지명을 하였음은 일부 업자에게만 특혜를 베푸는 처사로서 이해하기 지극히 곤란하여 대서울의 기술적인 건설을 위하여서도 입찰지명의 공정을 기하여 시공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를 촉구하는것입니다.

이유인물에도 나타났읍니다마는 도급업자에대한 지명문제는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결과 상당히 논의되온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있어서 특히 우리감사반이 여러가지 각도로

이점에 대한 추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계신 양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다만 될수있으면 우리 감사반의 의견으로서는 도급업자에 대한 등록이 너무 많다 그런말에요. 대체 그저 자격이 있으나 없으나 등록된 점 같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년이 되도록 지명하나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수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사를 일년에 한번도 지명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대개 자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지명을 받기 곤란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점도 있습니다. 다만 어째서 한번도 지명을 해주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반으로서 의심안할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국장께 부탁드립니다. 요다음 기회 업자등록에 있어서는 특히 심사를 철저히 해서 쓸데없는 업자를 많이 등록시키지 말음으로서 우리 감사반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명준; 이제 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보고를 일로서 다되었습니다. 거기 대해서 다른 보충할 것 없져.

(「없습니다」 하는이들있음)

그러면 그다음 사회보건위원회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의원 말씀하십시오.

○사회보건위원장 박승목; 90년도 시정감사에 임하여 본인의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하는바입니다.

물론 감사를 시작하는 우리 시의원 46명 전원 여러분과 또한 집행부 책임자 여러분께서는 물론 이 시정을 어떻게 하면 더 좀 잘할수있는지 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해서 본감사를 시작해서 보고함에 있어서 본보고가 어디까지나 정당하고 정확하다고 인정함으로서 여러 집행부 책임자 되시는 분이 90년도 살림살이를 참작해서 91년도 예산안에 그반영

이 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바입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 1년동안의 살림살이를 볼때 하나에서부터 백까지 전부가 예산외에는 조금도 못했다는것을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90년도 감사보고를 해서 물론잘못된점도 있고 잘된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잘못된것은 91년도에 고쳐보자는것이 시정감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 고로 91년도에 어느정도 반영이있어야 된다는걸 생각할때 의외에도 그저께 몇일전에 91년도 예산책정한것이 각의원한테 배부되었더라말씀에요. 제가 이번 감사를 생각할때 작년도에 미비된것이 많았고 금년에는 시정해보자 해서 여러가지안을 만들어놨습니다마는 이미 91년도 반예산이 나온데 거기 하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고생해가면서 감사받는 분이나 감사하시는분의 노력의결과가 하나도 없다는것을 말씀안들일수 없습니다. 그럼으로해서 제가 각오한것은 다른것이 없어요. 오직 90년도 시정감사보고에 있어서 여기에 집행부 책임자는 정당하다고 인정해서 91일년도 예산에다 책정해달라 말에요.

사회보전위원회 담당자로 생각할때에 만약에 본의원이 보고한것이 거기에 반영이되지않았을 경우에 심의않하는것을 나는 시인합니다. 그러므로해서 여러의원들이 물론 각상임의원들이라도 심중에 맞지않는것도 나올것이고 말씀하고싶은것도 않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심계원은 총의로 여기에 대해서 총관심을 써달라 이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 91년도 시전체 집행에 있어서 그것 그런감이 있지않을가 이런 말씀을 소감을 말씀드리고 또여러의원들이 저한테 몇마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군경원호감사를 실시할때 여러의원들 사직당국에 사회국장에 대개여러의원들이 논의가 많았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군경원호회관계는 분과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관계로 사직당국에서 아른채 만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의원들이 오해가 없으리라고 믿고 또 감사보고에대해서는 책임에 대해서는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감은 이것으로서 끝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사회보건위원회에 문의원 말씀해주세요.

○문학우 의원; 감사보고를 말씀드리기전에 특히 사회분과위원회 유인물에 대단히 오자 낙자 용어……착오를 이르킨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 미리양해해주시고 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회국 사회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전반이 소비及구호에 당하고있는 행정기관인만큼 행정전반에걸쳐 복잡성을 띠고있으며 현재 서울시내에 분산되어있는 무주택자난민 유랑민 방공호及판자집거주민들에대한 구호에 전력을 경주한 성의를표하고 있으나 서울시 재정으로는 활동의 효과와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국고보조及원조기관에 의존하고있는 실정인바 차등교섭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함은 물론 본래 계획에 의거한 목적달성에도 차질을 갖어오는 예도 허다한 실레이니 그노고에는 심심한 동정을 부○하는바이니 제반사업시책면에있어 피구호대상자에게 보다더 수혜되는 시안이 긴요되며 특히 지방에서 막연히 미연방지의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수립하는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난민정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사회과 사업으로서 가장 이채를 띤것이 미아리에 건립된 1천여세대에 주택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이주택공사가 완료되어서 천세대를 무주택자들이 입주하고 살고있읍니다마는 자치적인 단체로서 진흥회라는것을 만들어서 상부상조하는 이런기관을 만들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서울시 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서울시 자체에 경영하는 운영되고있는 자체기관인 만큼 본청에 감독에 손이 미치지않으리라고 믿는데 현재에 그사람들이 매월십만원씩을 거출해서 한달에 십만원에 경비를 유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난민주택에 입주하고있는 그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이용되고 사용되고 있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이모든점을 보아서 그나마 사람이 입주하고있는 그들에 경제적인 부담을 과히 시키지않도록 이러한 주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리라고 믿읍니다.

그다음에 노동자합숙소에대해서는 올때 갈때없는 그가난한 사람을 숙박시키기위해서 이것을 만들어놓고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에 이합숙소라고하는것은 단기 일주일이나 십일동안 숙박하고 판대로 숙소를 옮기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거기에있는 사람들이 숙박하는 기간을 볼것같으면 4개월 내지 6개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심한것은 개소당시부터 입주하여 오늘날까지 거기서 숙박하고있는 사람을 여러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과몇사람을 위해서 노동자숙박소를 만들어놓은 이러한 결과밖에 되지않기때문에 보다도 당초에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 그렇게 장기숙박하는 이런 노동자에게는 조속히 판대로 이동하게끔 조치를 해주시면 되리라고 믿고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보육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보호소와같이



서울시 경영하는 고아원인데 현재에 남자 254명 여자 84명 도합338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보육원은 한살부터 여덟살까지고 가장 기르기 어려운 젓먹이 어린이가 여덟명있는데 보육하는데 상당한 난관과 애로를 느끼고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가지 여기에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두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중국 대사관에 연락하셔서 중국 대사관에게 신원을 이관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반공청년及敗順兵에대해서는 이월남귀순병 반공청년을 서울시가 몇구청에 할당을 시켜가지고 한구에 수십명 수백명을 보낸일이있습니다. 구청자체로서는 이반공청년이나 귀순병에대한 급식 또는 이숙소 알선에 대한 예산이 없기때문에 대단히 곤란을 느끼고 있어요. 해서 저이들이 감사할때 감사당시에 재작년도인가 하나도 하나도 인원을 파악을 못하고있다말이에요. 실지 장부상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였는지 실지 파악을 못하고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귀순병에대한 문제인데 입대혹은 취직을 구실로 칠 팔명에 여관비까지…… 또는 몇달동안먹고 구청에다가 요구했다는 구청이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귀순병과 반공청년에 대한 취급문제는 좀더 보건사회부와 긴밀한 연락을 하셔서 각구청에 물질적 또는 정신적 과중한 부담이 되지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보호소에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마말씀드린 삼성보육원과 마찬가지로 2대고아원에하나로 서울시내를 유랑하는 무의무탁한 불량아를 수용하여 보호육성하며 중고등학교 교육까지 시비로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되어있는 수자는 약6백여명인데 의복이라든지 또는 내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이런것에있어서

는 위생시설이 잘되어있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에 노고가 많다는것은 사의를 표하지않을수 없습니다.

한가지 특히 말씀을 드릴것같으면 중앙보호소를 부암동에 다 신축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현장을 가보았는데 아동 수용소만 만드려놓고 창고 사장 목욕탕 사무실 교실등을 만들어놓지않았기때문에 옮기전에 이동한다고 하면서……이동 직접 여기에대한 운영에 타격을 받지않을가 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전에 부속건물을 완성을 해서 이동후에라도 중앙보육원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익전당포 작년도에 용산전당포에서 부정대출로 물의를 일으켜서 저이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감사를 했습니다. 서대문전당포에 문서및 물품취급이라든지 금전대출에 있어가지고 전력을 다하는것이 보였읍니다마는 전당물 취급에 성의가 부족했습니다. 양복이 곰팡이가 피었으니 좀이먹고……이러한 전당물 취급을 하고있어요. 시정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취급직원에 사무적 착오라든가 또 성의가 부족한데 기인한다는것으로 이렇게 믿고있습니다. 시정하도록 구두로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동부전당포는 금년2월25일부 김기남에게다 회중시계한개 폐품이되어서 삼천환에 대출해 주었고 또하나 문병주라는 사람은 다떠러진 코-트한벌에 일만환에대출해주었는데 이것은 확실히 부정 대출입니다.

이것은 회수를해서 부정대출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의약과를 말씀드리면 사무처리관계를 보았는데 대단히 성의가 표시되어있고 취급이 잘되어있어요. 그러나 민원서류가 드러와가지고 본인에게 넘어가기까지 3개월 내지 4

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의학위원회에서 취급하는 민원서류 대부분이 시일을 끌고 있는데 서울시청 자체에 모순이 아니라 왜그러냐하면 의사 면허 증교부 신청이라든지 약사면허신청서라든지 하는 것은 서울시가 경유하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최종결정을 보건사회부에 의존하는 관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나 3개월내지 4개월 날자가 걸리는데 시민에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보사부와 긴밀한 연락하에 결정시일을 단축시키는 이런 방향을 강구해주시라고 믿는바입니다.

다음에 마약환자 及마약밀매자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내에 약오천명이 마약환자가 산재되어 있는것으로 추산됩니다마는 지금 서소문일대 인현동일대 익선동 낙원동 부근 영등포역전 부근을 가면 많이있는데 강력한 단속을 하여 마약환자○료소에 수용하여 치료토록 특별히 조치를 강구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다음에는 약국취체및 부정약품 적발에 대하여 서울시 마약상을 적발해서 검찰청에 송청을하면 검찰청에서는 이범법자를 검거하면 처리결과가 서울시청으로 응답와야만할 문제가 그렇게 불과온것이 몇건되지않고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오지않기때문에 서울시 당무자로서는 그마약환자가 형무소에 드리갔는지 혹은 어떻게 시내에 나와서 이런 범법행위를 하고있는지 이것을 파악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검찰청과 긴밀한 연락하에 처리되는데로 조속한 처리통고를 받도록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약국취체와 병원단속에 대한 유인물을 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 사회국소관에서 가장 문서처리혹은 민원서처리가 잘되어가지고 있는대가 위생과입니다.

감사당시에도 대강말씀 드렸읍니다만은 앞으로 좀더 일반 민원서처리 또는 공문서 처리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되리라고 믿고있어요. 제조업허가 일원화에 대해서 지금 대개 서울시에 제빵업자와 제과업자……빵만드는집에서는……어떻게 제과사는 서울특별시장이 해주고 제빵은 구청이 해준다.

대동소이한 물건을 만드는데 허가권은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간소화를 위해서 서류내지는 공문서에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허가사무를 일원화하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유독성주류 단속에 대해서는 각종주류제조업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유독성 유무를 분석을하고 있는데 시민들에 생명 보호상 대단히 좋은 경향이라고보고 있습니다마는 각구청장또는 기관장들이 여기에대해서 협조가 없다는것을 말씀 드리지 않을수없읍니다.

왜냐고하면 4290년 9월5일 날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에 경찰국장및 구청장에 시달공문을 보면 본청에서는 전차 유독성 주류 폐기에 대해서 기관장은 보고하라고 검찰청장께 내려 보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15일 날자로 서울시경찰국에 시달에 대해서 9월24일 날자로서 영등포구청과 서대문구청만…….

2개구청만이 폐쇄처분을 했다는 통지가 왔읍니다. 나머지 7개구청에서는 보고뿐만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는데 직접 시민의 관심이되는 공문서를 등한히 했다는것은 언어도단

에 처리로서 이점에 특히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소홀한 행정취급이 되지않도록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운영에 대해서…….

각보건소 운영에대해서……. 현재 서울시내에 종로 회귀동 서대문 용산이 미화 보건소가 있습니다. 90년도 1년간 예산이 8백4십만원 내지 8백7천만원인데 구월말일 현재까지 영달된 금액을보면 3백4십만원내지 3백6십만원밖에 영달이 안되었다 그말이에요. 불과 40퍼센트밖에 영달이 안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라고 하는것이 수입에 의존하는 기관이 아니고 순전히 보건복지기관이니만큼 소비기관인데 여기에 영달을 안주어 가지고 어떻게 보건소를 운영하느냐 그말이에요. 하니 보건소 운영에대해서 아동들 진료에 소박한 사업이니만큼 각보건소에대한 예산영달만은 적기에 지급해서 각보건소운영에 지장이없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 보건진료소 승격 문제인데 보건사회부지시로서 현재 사개 보건소이외에 동대문 성동 성북구 마포 영등포및 신촌 모범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91년까지 보건소로 승격시키지않으면 이기구를 타도로 배치하겠다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시가 내려온줄 믿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서울시 재정이 팍박하고 뭐하드라도 각구청에 보건소하나만은 설치하도록 내년도에 보건진료소 승격에대해서 좀 심심한 고려를 해주시어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각보건소 차량배치에 대하여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건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것은 내가 말씀드리지않더라도 집행부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름에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때에 차가 없어서 고생을 하는곳이 이보건소 인것입니다. 차량이 없으니까 심지어 사정에 따라서 이십리 내지 삼십리를 도보 또는 자신이 차량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사업을 해야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본청에 지금 보면은 쓰지못하는 차가 우굴 우굴해요. 이것 불급한데 차를 주리드라도 이보건소에 최소한도 스리코-타 한대식이라도 배정하여 각종 사업을 기동있게 활동케하며는 보다더 시민 보건에 큰성과를 가져온다는것을 아시고 여기에대한 심심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산보건소에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용산보건소가 1월1일부터 구월말일까지 취급한 환자의 총수가 3만8천명 가 량됩니다.

특히 이것은 나가보셔도 아시겠지만 건평이 20평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결핵환자와 개인 임산부등을 같이 취급하고 있다말 이에요. 그러니 치료는커녕 오히려 나쁜 병이 전염이 될 우려 성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좀더 좋은 건물을 물색해서 각종전염병과 일반환자와 사무등을 따로 볼수있을만한 곳으로 이전하면은 좀더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산부및 밀매음녀에 대하여…….

현재 서울시내에 소위 매음굴로서 우리가 지칭할수있는 곳 이 목정동 종로3가양동 청계천변 이태원 삼각지 일대등 이렇게 지목할수있는데 그수자조차 지금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원래 접대부라는 밀매음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자체가 그사람들에 대한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검진을 강요할수없는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에 협조를 해주어야 하느냐하면 이들을 취체할수없는 경찰이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보건소를 두고 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종로3가에 종로보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보건소에서 취급한 검진한 인원이 1월달부터 9월말까지 367명을 검진을했다 그말이에요. 회현동 목정동에 출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843명이 검진을했고 서대문이 128명 용산이 231명 극히 적은 수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데 이렇게 적은 수자를 나타나게 된 그원인은 각보건소 자체가 그들에 대한 단속권이없는 관계로 창녀나 접대부를 취급할수있는 경찰국과 앞으로 긴밀한 연락을 해서 이사람들에 대한 검진을 철저히 해서 성병 예방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시험소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재장 운영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도 불가불 묘지나 화장장에다가 시체에 처리를 해야될텐데 이서울시 장재장 이라는것이 대단히 고약합니다.

감사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화장장의 인부들이 마치 살아있는 閻閻大王입니다. 일일이 돈안주면 화장 집행을 못합니다.

고의적으로 화장을 갖다가 지연시키고 있다 그말이에요. 일전에 10월4일 화장장주인이 매를맞고 울고 불고 야단을 했습니다마는 여복해서 상대가 화장장주인을 때리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운영을해나가시다가는 화장장주인매맞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맞아죽는것이라 말이에요. 하니 화장  
인부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  
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구가 파손되었다고해서 추가예산때에 사용 불능한 11개  
의 수리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구하지 않고있는  
이유를 알수없다 그말이에요. 예산이 통과되었으면 예산에 의  
거해서 조속히 수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防療사무소 문제는 유인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주택과 이주택과 문제는 감사한 저이들뿐만아니  
라 현재 재건주택이라고 후생주택에 임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여론을 드러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신촌 또는 ○○동 곳곳에……. 서울시가 경영한 재건주택과  
부흥주택의 건축공사가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느냐하는것을  
한번 실지 답사해 보시면 알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상세히 말  
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주택과에서 수통의 진정서를 접수하  
고 또거기에대한 해명이 나와있읍니다마는 특히 내가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신촌 재건주택에대한 문제인데 이재건주택은  
삼천리건설주식회사 삼만이사 김진현 금강토목공사 김재황  
이에 청부업자가 공사를 했어요. 한데 공사한지 불과 몇달이  
못되어서 기초가 가라앉아서 기둥과 기초사이가 두치 내지  
세치의 간격이 떠가지고 있어요. 벌써 기울어졌어요. 기울어  
지고 벽이 조다 깨지고 변소를 지었는데 방벽장치를 안했에  
요.

그래서 변소의 악취 마루방벽으로 드러온다 그말이에요. 그  
래서 이것을 고치도록 네번이상 구두로도 했고 공문으로 세  
번 독촉을 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손을 안대고 있



다 말이에요, 이런 무의식한 업자를 그냥 방임해 두는 그 이유를 알수없다 그말이에요.

도급계약에 의해서 기한내에 파손 또는 부실한 공사를 했다고하면 조속히 이것을 고쳐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업자를 그냥 방임해두는 이유를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부흥주택의 입주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빨리 이것을 수리해놓고 이따위 무의식한 업자를 시출입업자로서의 자격을 해소시켜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것은 주택대금징수에 큰지장을 초래함으로서 주택건설에 있어 중대한 참고가 되지않을가해서 이것을 특히 말씀해 둡니다.

그다음 각구청 사회과.....작년사무감사시보다 상당히 개선이 되어가는감이 있고 민원서 취급이라든지 또는 구호사업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성적을 올리는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마는 특히 여기에 한가지 마포구청사회과에서 너무 지나친 친절을 배푼 사실을 말씀드리지않으면 안되겠어요.

식육판매업장소 이동신청인데 이서류를 8월13일날 접수를 했어요. 여기에 접수도장은 언제 찍었느냐하면 8월23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검사를 8월2일날했어요. 그러니까 서류와 접수인을 찍기전에 열흘전에 접수되고 접수되기 열흘전에 8월2일에 현장검사를했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열흘후에 9월3일에 공문서에 결재를 해서 내주었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공문서 취급상 모순된 행정 취급은 하지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각구청에서 채용하고있는 부녀촉탁직원 수당에 대하여.....각구청에 부녀사업이나 계몽사업을 하고 부녀촉탁이 있는데 이들에게 불과 몇푼 안되는 촉탁수당까지 지급못하고

있어요. 수당지급못하고 촉탁을 왜두느냐 그말이에요. 차라리 해임을 시킨다든지 둔다고하면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둘중에 하나 결정을 지어야 할것입니다. 하니 연체된 부녀촉탁수당을 빨리 지급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이러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구호사업에 대한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시립병원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경영병원으로서 시민병원 자혜병원 보건병원 영등포병원 순화병원 마약치료소등 6개병원이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영달을 제때에 주지않기때문에 상당한 시비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이라든지 주부식구입 연료구입에 있어서 현금 거래를 하지않으면 2할 내지 4할의 고가를 가외지출을 하고있다 그말이에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가 제때에 영달을 하지않기때문에 쌀한가마 2만환하면 2만환할 그당시에 계약에는 2만2천환 내지 3천환, 4천환으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있다 그말이에요. 돈을 서너달씩 늦게 주는 관계로 거기에 잡금을 부친다 그말씀이에요. 하니 이점 조속히 시정하지않으면 6개병원에 있어서 그 낭비가 굉장한 것이니 이것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병원본래의 목적과 사명을 생각해서라도 적기에 예산지출을 하여 병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영달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혜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혜병원이란 서울시내 유일의 무료병원입니다.

1월달부터 9월말에가 취급한 환자수가 43,526명인데 이들을 취급하고있는 이병원건물이 35년전에 건축된것입니다.

35년전에 건축된것인데 건물이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더구나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퇴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리를 해나가도 수리마저 불가능한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요. 복지를 하기위해서 무료병원을 한다고하면은 좀더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줄수있는 또좋은 분위기를 만들수있는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지가 2,000평되기때문에 신축을 한다든지 특히 보호해야 할 이런 무료병원을 운영못하고 있으니 이런 형편은 안되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국장님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병원에 전반에걸친 입원환자들의 급식상태를보면 8할이상 잡곡이예요.

물론 무료환자들이니까 그저 굶어죽지않을 정도로 먹여주면 될것이라는 그러한 급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대가 환자이니만큼 거듭 급식에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쌀을 한 두알 갖다가 디여서 준다고해서 환자들이 거기에 영양가가 되지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료병원에대한 급식에대한 연구를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병원에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작년 일년간에 보건병원에 수용하고있는 어린아이의 사망수가 75명인데 금년9월5일까지 176명 죽었다 말이에요. 불과 일년이 못갔는데 작년이상의 수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시민병원이 이동하기때문에 시민병원에 수용하고 있든 초생아와 여아를 수용한 관계라고하지만 좀더 병원을 운영하시는분은 어린아이에대한 사망에대한 사전조치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병원……. 작년감사때혼난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

는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개정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면에있어서 본궤도에 올르고 있는것을 불적에 원장의 수고에 감사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영등포 유일의 시립병원으로서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하면 창고가 좁아서 물품을 보관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병원 운영상 병원의 물품을 보관할수있도록 창고를 신설해 주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순화병원 이것은 유일한 결핵환자치료소로서 9개월간에 57,729명의 환자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자를 취급하고 있어요.

병원도 크기는 큼니다마는 역시 환자가 많기때문에 현재 여기에다가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공사가 완료되면 좀더 결핵퇴치에 가일층의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순화병원도 아까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영달관계로 해서 운영상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이것은 각병원 보건소각사업소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중복해서 말씀드리는것 입니다. 그러니 이점은 특히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하는 바입니다.

마약치료소.....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서울시내에서 5천명으로 추산되는 마약환자들 수용을 하는데 연간 1,500명에 달하는 입원환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물이 목조건물이 되어서 입원환자들이 탈주를 한다. 심지어는 지붕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지경입니다,

그근방이 주택지이기때문에 그주민의 비난이 많습니다. 또 현재로는 마약 환자 수용이 불가능하지 않을가 생각하기 때

문에 이번 기회에 판데로 이동하도록 좀더 견고한 건물을 지어서 환자들의 탈출을 방지하며 또 그환경을 좋게해서 병치에 좋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3년이상 한자리에 두었다 이런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약사업소장이 물론 적재적소이기때문에 무려 10년동안 마약치료소에 있답니다.

그러니 이런것도 장기적으로 10년간이나 두어도 괜찮은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시민병원관계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시는 바와같이 오랫동안 휴업되고 있었고 별로 지적할것은 없읍니다마는 한가지 말씀드려둘것은 기히 시민병원으로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관한 이상 이번 기회에 입원실을 완비해서 시민병원으로서의 면목을 다하도록 개설공사를 해서 시민병원의 말은바 사명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경원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시민병원 감사나갔다가 느낀바 있어서 보고서에 이것을 썼읍니다. 시민병원전면에 위치한 송우범이 사장인 남북건설주식회사는 시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양옥 2층건평 25평의 무허가 건물을 준공하였으니 차를 묵인한 관계관을 엄중 문책할것이며 차건물을 급속철거할것을 요망한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이것 소위 대한민국의 건설사업을 맡어가지고 있는사람이 이렇게 무법 불법한 행위를 할수가 없읍니다.

더군다나 남의 전면에 집을지어놓고 차량통과를못하고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때문에 현재의 남북건설이라는 일개토건회사가

불법을 행하느냐 말이에요.

서울시가 이렇게 무능하냐 말씀이에요. 일부 청부업자때문에 160만시민이 이용하는 병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때리시요」 하는이있음)

송우범 한사람이 서울시청을 리-드할수있느냐 말이에요. 왜이렇게 무능한 행위를 갖다가 일반시민에게 폭○시키느냐 이것을 만일 급속히 조치하지않으면 우리 의회로서도 결코 생각이 있다는것을 이기회에 말씀드려드립니다.

(「울소」 하는이있음)

끝으로 세간에 물의를 이르고있는 군경원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장황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것으로 믿습시다마는 여하간 조국독립을 위해서 심력을 바친 그들을 원호한다는 미명하에서 착취를 하고있는 이기생충 같은자와 우리 사회에서 없애버려야한다. 이것 아주 기생충이라고 인정안할 도리가 없어요.

이것이 무법 천지같으면 종로네거리에서 없애버리겠어요. 이것 유인물을 그대로 낭독하기전에 군경원호회가 현재까지 해내려온 업적이라는것은 상이군인들이나 또는 전몰유가족을 원호하는데 치중해 왔든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몇사람의 사복을 채우기위해서 한것이라는것을 지적하지않을수 없습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발표되어서 공청까지 되었습니다마는 서울시 금고를 불과 3미-터 밖에다두고 중앙무진회사에도 주어 통장네개를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네개 가운데에 두개가 개인 명의로 되었어요. 우리가 감

사나간다고 하니까 불야불야 11월2일날 군경원호회 통장에다가 옴졌다 말이에요. 끝까지 속이고 은폐할려다가 적발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까라는 서울시지부 또는 각구분회에서 징수된 금액에 8할쯤더 약하게 보아서 7할5분을 자체의 경비에 소비되고있다는것을 적발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 각구에서 징수한 금액의 3할5분을 서울시지부에 납부합니다.

그다음 축탁들의징수 수당이라고해서 일할오분내지이할오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인건비다 해가지고 약2할 이하이고 나머지 7할5분나 내지 8할이자체가 소비하고 군경원호회에 쓰는것은 이할내지 2할5분밖에 안됩니다.

또 각구 통반장들을 접대했다 하는 명목으로서 백2십3만환의 식비 지출을 했는데 실지 통반장들을 각구청에가서 들어보니까 언제 그러한 회의를 소집했느냐 하고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이대로 이사람들에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몇몇 사람의 사복을 채우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는 서울시장이 지부장이라고 하면 강력한 감독권을 발동해야 될것입니다.

그러나 군경원호회 규약상 서울시장이 명의로만 지부장이지 감독권을 발동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리권이나 인사권이 지부장에게 부여되어있지않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만들어놓고 받은돈을 쓴다는것은 너이는 참견말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헐잡을 해먹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군경원호회운영  
을…….

(「폐지시켜요」 하는이있음)

서울시 사회국장이 직접 이사무를 담당하도록 해가지고 인  
건비를 절감하고 무용의 착취를 방지하여 원호중점주의로서  
균등 원호를 실시함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가 이  
렇게 생각하기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참  
작하셔서 군경원호회에 사무가 불원간 서울시는 사회국 또각  
구청은 사회과이렇게 이관이 된다고 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  
러한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말게하고 좀더 유효적절  
한 원호사업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소」 하는이있음)

그다음 마지막으로 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총평

서울시의회발족이 타도에비하여 지연된 관계로 서울특별시  
는 장구한동안 관치행정의 폐습에 함입되어 관료적 사무행정  
이 개선되어가는 경향이 농후하여 사회국전반에 걸쳐 개선에  
정이 다분이있으며 작년도사무감사당시에비하여 장족의 개선  
을 보았음은 경하하는바이며 가일층 주의와 노력을 경주하여  
명년감사○○ 추호도 결함과 과오가 지적됨이 없도록 하여주  
시기 바라며 사회국소관각사업소가 대부분 시민복지기관인만  
큼 자체세입에 의존치 말고 당초 예산에 치중하여서 적기영  
달을 실시하여 각사업소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지않도록 노력  
할것이며 예산영달을 받기위하여 각사업소 사무장 또는 서무  
과장이 매일본청에 출입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현실을 각사업  
소 사무장이나 서무과장은 마치 영달받기위하여 임명한것과  
같은감이 불무하며 사무에 지장이 막대하니 차점 특히 고려



할것이며 현재 시립각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에 대하여 공무원 대우로서 월20,000환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로서는 능율이 향상되지않으며 현재 시내각종합병원에서도 여좌 의무 촉탁제를 실시하여 의사본연의 대우를 실시하고있는 형편인바 현재 시내의 시립병원의사들의근무상태는 보수가 약소한 관계로 성실을 결하고 근무시간을 등한히 하고있음은 부인치못하는 사실인즉 차를 좌기일람표를 참고로하여 대우를 개선함으로서 근무에 성실하며 시간엄수토록할것을 강조하는 바임.

.....  
 (참조)

시내각종합병원의사보수일람표

병원명    보수    보수액    비고

세부란스병원    일인당    150,000환

이대부속병원    130,000환

적십자병원    80,000환

경전병원    80,000환

서울대학부속병원 80,000환    학교후원회비포함

수도의대부속병원 80,000환

.....  
 시립각병원공히 유무료환자를 막론하고 담당직원 (특히접수) 들이 불친절하다는 세평이 유하니 각별주의하여 환자취급에 성의를 베풀것을 요망하며 군경원호 사업에 있어서는 전몰장병의 유가족및 상이군경을 원호한다는 미명하에 실지구호에는 치중함이없이 幾個人의 壟斷에 좌우되어 있으니 현○○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을뿐 아니라 一言而蔽之하면 상이군경원호를 빙자한 기생충적존재라고 얹어할수없음

으로 여사한 사회악을 조성하는 단체나 또는 구성분자가 존재할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함으로 감사보고의 내용대로 급속한 시일내에 개혁을 단행하여 시민의 의혹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원래의 목적인 상이군경원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정비함을 재강조하는바임.

이상으로서 본사회보건위원회의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종구; 사회보건위원회의 감사보고에 누락된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있음)

그러면 오늘 보고사항은 다끝났습니다. 오늘 시간도 다되었으니 이것으로 폐회를 하는것에 이의없으십니까?

(「처리해요」 하는이있음)

그러면 보고사항은 다끝났으니 이보고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어떻게할지 여러분께서 누가 성안을 지어주시기바랍니다.

(「의장」 하는이있음)

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이갑수 의원; 우리가 그동안 시정감사를 통해서 여러가지로 일년○개월간의 시행정면의 사실여부 잘되고 못된것을 일○감사한 결과가 오늘 전반적인 문제를 보고받았습니다.

그중에 유인물에 빠진것은 구두로 첨가한것이 있으나 집행부로서 이문제를 전부 속기록을 통해설량은 차후로 차기회의에 기일내에 거기에대한 전말을 명확하게시리 전부 과거모양 변명상태로 나오지 마시고 잘못된것은 잘못된것대로 잘한것은 잘한것대로 사실 그대로 내주실것을 전제로해서 이것을 접수하는 양으로 해주실것을 본의원이 동의하겠습니다.

(「날자정해요」 하는이있음)

날자를 정하는것은 만일에 날자를 정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무엇하니까 차기회 기내에서……차기회기라는것은 12월 정기  
회에서 질의도있고 이러한 문제가 또 있을것이니까 그회기에  
가차운 시일내에 내주실것을 바랍니다.

(「날자를 정해요」 하는이있음)

그러면 15일 이내로 하지요.

(「늦어요」 하는이있음)

5일까지는 안될것입니다.

12월10일까지 전반에 대한 전말을 내주실것을 동의하겠읍  
니다.

(「찬성어요」 하는이있음)

○부의장 이종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있음)

이의없으면 이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정의건.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분담금 징수조례 제정의건.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체비지매각 사업실시에 관한건

자동차(짚)구입에 관한건

폐회중 의회 권한위원회 위원조례 청원심의의건 이상입니  
다.

(16시 25분 산회)

---